

한국 중학생, 대학생, 성인의 미국에 대한 인식: 반미감정의 심리 사회 문화적 토대 탐색

김 의 철[†] 박 영 신 오 나 라
중앙대 심리학과 인하대 교육학과 중앙대 심리학과

이 연구에서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미감정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중학생과 대학생 및 성인들의 미국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내용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한국 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미국에 대한 인식이란, 미국 자체에 대한 인식과 미국의 영향에 대한 인식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의미한다. 미국 자체에 대한 인식은, 미국 사회에 대한 인식, 미국 사람에 대한 인식, 및 미국에 대한 신뢰의식을 포함하였다. 미국의 영향에 대한 인식은, 한국 사회에 대한 영향, 한국의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영향, 및 세계에 대한 영향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였다. 두번째로는, 중학생, 대학생, 성인 세대 집단별 정치만족도수준 집단별, 미국에 대한 지식정도 집단별로, 미국에 대한 인식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최종분석대상은 763명이었으며(중학생 -17명, 대학생 -25명, 성인 -34명), 성인은 중학생의 부와 모로 구성되었다. 분석결과, 한국 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으며, 반미감정과 관련된 사회적 표상의 내용들이 확인되었다. 미국 사회에 대해 상업주의적이고 배타적 우월주의라고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정도가 높은 반면, 민주시민사회라는 긍정적인 인식의 정도는 낮았다. 미국 사람에 대해서도 이기적이라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는 높은 반면 선진국민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은 적게 하였다. 미국에 대한 신뢰는 매우 낮았는데, 미국 사람 뿐만 아니라 미국 기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한국 사회에 대한 미국의 영향에 대해, 종속관계가 되었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는 높았으나,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인식은 낮았다. 한국의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미국의 영향으로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세계에 대한 미국의 영향으로는, 초강대국으로 제국주의적이며 문화적으로 지배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고, 정의를 수호한다는 긍정적인 인식은 낮았다. 2) 세대집단별로 미국에 대한 인식에서 매우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는데, 어릴수록 미국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즉 중학생이 미국에 대해 가장 부정적이고 성인이 가장 긍정적인 경향이 있었다. 또한 한국의 정치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미국에 대한 지식이 적을수록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주요어 : 반미감정, 세대차이, 미국에 대한 인식, 미국의 영향에 대한 인식, 신뢰, 정치만족도, 미국에 대한 지식

[†] 교신저자 : 김의철, (156-756)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uicholk@chollian.net

한국 사회변동의 맥락에서 본 한미관계의 변화

많은 심리학자들이 개인의 심리와 행동에 관련된 주제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문제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연구로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들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에 출판된 논문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교육의식(한성열, 1994), 노숙자(이훈구, 전우영, 정태연, 1999), 왕따(권준모, 1999), 권위(최상진, 김의철, 홍성윤, 박영숙, 유승엽, 2000), 교통행동(이순철, 2000), 연고주의(안신호, 2000), 공과 사(한규석, 2000), 집단주의(이종한, 2000), 국가투명성(나은영, 2001), IMF시대(박영신, 김의철, 김묘성, 2002) 등 한국 사회와 직접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이 연구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 사회의 문제와 특징을 다각도로 이해하고 진단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문제 자체들을 다루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어왔고, 우리 사회를 벗어난 외부 사회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특징들에 대한 검토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가 창간된 1994년부터 10년 동안 지금까지 우리 사회 이외의 외부 사회와 관련된 연구로는,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태도”(김혜숙, 2000)에 대한 것이 유일하였다.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한 인식과 방향모색을 위해, 우리의 사회문제의식을 개인의 심리 행동차원이나 한국 사회 내의 문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세계의 변화와 국제관계의 맥락 속에서 접근하려는 시도도 점차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접근이 사회학자나 정치학자나 경제학자에게만이 아니라 심리학자에게도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오차로 간주되는 외부세계의 자극을 차단한 고립된 개인과 같은 실험실 속의 인간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며 환경 속에서의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고

살아 움직이는 인간의 심리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의 심리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는 기본 전제와 같고, 또한 한국 사회는 세계 속에서 상호 교류되며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매우 급격한 사회 변화를 때로는 자의적으로 그러나 때로는 타의적으로 이루어 왔다. 한국 사회의 변화과정에서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친 변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외적인 요인으로 미국의 영향 또는 한미관계를 빼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변동의 맥락에서 한미관계가 어떠한 변화과정을 거쳐 왔는지에 대한 이해는, 앞으로 한미관계의 방향을 가늠하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계획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거부할 수 없는 국제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제 한 사회의 미래 방향이나 발전가능성이, 국내적인 문제의 해결이나 대안 제시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음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제 사회 속에서 한국과 가장 긴밀한 관계에 있는 미국과 관련된 주제들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가 요구된다. 2002년 말 미군 장갑차에 의한 한국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한국인들의 반미 여론이 급속하게 부상하였고, 2003년 초 현재 이라크전쟁의 발발과 관련하여 한국군 파병문제로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속에서, 한국 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는 중요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의 변화과정에서 한미관계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을 정리한 결과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이 그림은 현재 10대 청소년세대에서부터 60대 노인세대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집단별 한미관계 경험의 대표적인 사건 중심으로 정리한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60대 노인세대

가 아동기에 경험한 1940년대의 사건들부터 그림에 제시되어 있다. 비록 이 그림에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1940년대 이전에도 미국의 선교사들이 조선시대 말기부터 한국의 교육과 의료 활동에 개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은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지만, 이 연구에서는 한미관계의 역사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에 주된 관심을 갖기 때문에, 현재 노인세대들이 경험한 1940년대의 사건부터 정리하였다.

실제로 국가차원에서 본격적인 한미관계의 시작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하는 전후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43년에 연합국들이 한국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보장한 카이로 선언과, 이러한 카이로 선언을 재확인한 1945년의 포츠담선언이 대표적 예이다. 미국은 영국 중국과 함께 포츠담선언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일본의 항복으로 조선이 해방1945년 된 뒤에 1946년부터 1948년까지 미군정기간을 거치면서, 미국 군인이 한국을 통치하였다.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미군정기간이 종료되었고, 1949년에는 미군이 철수하였지만, 곧이어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1953년 7월에 휴전이 되고, 곧이어 10월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남한과 미국은 그야말로 서로의 생명을 지키는데 협조하는 혈맹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 남한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한반도가 차지하는 지정학적인 중요성으로 인해, 남한과 미국은 계속해서 동맹국가로서 긴밀한 협조를 맺어 왔다. 이 시기에 미국은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남한에 대해 일방적인 지원을 계속 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한미관계는 한국전쟁 전후의 혈맹적이고 의존적인 관계가 점차 약화되었다. 1965년에 한국군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미국

과 동등한 관계에서의 공조체제를 강화하였다. 1969년 닉슨대통령의 “괘도트린”에 따라 1971년에 주한미군이 감축되었으며, 1976년 카터 대통령의 주한 미군 철수계획 이후 1979년에도 주한 미군이 감축되었다. 이로 인해 남한의 방위력을 강화해야겠다고 판단한 박정희 대통령의 미사일과 핵개발의 추진으로 양국은 갈등을 갖게 되었다. 이외에도 1976년 박동선 사건은 한국과 미국 관계에서의 문제와 갈등을 심화시켰다.

1980년 전후로 양국간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정치적인 노력이 있었다. 1979년 카터 미 대통령의 방한과 1986년 전두환 대통령의 방미 및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의 방미로 이어지는, 국가 지도자의 상호 방문은 우방국가로서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1980년에 소련에 대해 강경노선을 지지한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과 미국의 군사관계가 회복되었으나, 미국의 무상원조와 경제원조에 의한 일방적인 지원관계에서 상호보완적 동반자관계로 변화되었다. 한국이 주한 미군 주둔군 지원을 위한 비용을 분담하고 미군시설 개선을 위해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군사적으로 한미동맹의 새로운 강화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대학생을 중심으로 미국에 대한 강한 저항운동이 있었다. 예컨대 1982년에 부산의 미문화원이 점거되었으며, 1985년에는 서울과 광주 미문화원이 점거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점거는 매우 과격한 시위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정치적인 시위 외에, 1985년 미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인한 경제적인 갈등은, 미국과의 갈등이 다양한 방면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주목할만한 사건이다.

1990년에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구상에 의해 주한미군의 3단계 철수안이 제시되어 1992년까지 1단계 철수가 이루어졌다. 1994년에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한국이 환수하게 됨으로써,

그림 1

K C I

한국 방위의 한국화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환경 변화는 한국의 주체성에 대한 인식을 보다 강화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미군과 관련된 사건들로 한국 사회에서 미군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크게 작용하였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2000년 메카시 상병의 이태원 여중생원 살해사건과, 2002년에 발생한 미군 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을 들 수 있다.

세대집단별 한미관계 경험의 차이

2003년 10월에 한미상호방위조약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한미동맹관계의 역사는 한국 근 현대사의 역사와 중첩되면서,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 사회변동의 맥락에서 한미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한미관계는 그야말로 혈맹관계에서 동반자관계를 거쳐 최근에는 갈등관계로 변화해 왔다. 수 십년간 한국에서 한미관계의 변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들은 한국 사람 각 세대집단별로 한미관계에 대한 다른 경험을 제공하여왔다. 이와 같이 세대집단별로 다른 경험은 각 세대집단별로 미국에 대해 다른 사회적 표상을 형성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의 인식과 심리, 더 나아가서 행동은 환경으로부터의 경험과 끊임없이 상호작용(Bandura, 1997)하면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변화는 각 시대를 살아온 세대집단의 삶의 경험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림 1에 제시된 바처럼, 지금의 청소년이나 청년에 해당하는 세대들은,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성장한 환경에서 성장한 인터넷 세대이며 1950년대의 한국전쟁을 전설과 같이 상상력을 동원해야 하는 이야기로 듣는 세대이다. 한국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도 없으며, 미국이 한국에 도움을 주었다는 인식도 없다. 비의도적이라 할지라

도 일부 미군들에 의해 한국인이 피해를 보고 사망하는 사건들로 인해 오히려 미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특별히 긍정적인 경험을 갖고 있지 않는 청소년집단으로서는, 미국 사람과 미국 사회 그리고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전반적인 거부반응을 쉽게 형성하였다. 동시에 한국의 자립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는 청소년세대로서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더불어 한미관계에 대해서도 수평적 관계를 요구하게 되었고, 현재의 한미동맹을 오히려 사대주의적이라고 비판하는 시각을 갖고 있다. 2002년 여중생 사망사건 이후 시청 앞 촛불시위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한 것은 이러한 최근의 미국에 대한 부정적 정서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지금의 청소년들과 같이 청년기에 일부 미군들의 행동으로 인한 매우 부정적인 사건들을 경험한 것은 사실이나, 그들의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1990년대에 주한 미군의 단계적 철수와 한국의 작전 통제권 환수 등, 한국 방위의 한국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은 한국의 주체성에 대한 인식을 보다 강화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의 30~50대 성인들은 한국과 미국의 우방관계를 결속하는 많은 사회적 사건들을 경험하였고, 그들의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한국군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한미 공조체제가 강화되는 것을 경험하였으며 점차 상호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한 시기에 성장한 세대이다. 이와 동시에 1970년대의 한미갈등과 1980년대의 대학생 미문화원 점거 등으로 미국을 제국주의로 인식하고 한국과 미국관계에서 문제의식을 경험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지금 한국의 성인세대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면이 아닌 문화적인 면에서도 미국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집단으로서, 예컨

대 통기타와 청바지 등으로 상징된 미국의 대중 문화는 그들이 청소년시기였을 때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60세 이상 노인들은 한국 근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파란만장한 세월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생존해 왔을 뿐 아니라, 보다 직접적으로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이다. 그들은 공산주의와의 전쟁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생존한 세대이며, 그 과정에서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함께 싸우고 파흘린 혈맹관계로서 미국을 경험하며 성장하였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가 안전하기 위해 미국과의 동조가 중요하다는 신념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갖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세대집단별로 미국이나 한미관계와 관련된 경험이 판이하게 다르고, 이러한 경험의 차이는 세대집단간 미국에 대한 사회적 표상에서도 큰 차이를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의 반미감정

한미동맹 반세기의 시점에서 한미동맹관계가 그리 견고하지 않은 상황에 있다. 한미관계는 남한과 미국의 관계만이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 및 국내의 주변 상황의 변화 등과 밀접히 맞물려 있다. 대표적인 주변 상황의 변화로, 냉전의 붕괴와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롯된 남북협력의 진전 및 이라크전쟁 등을 들 수 있다. 2002년 초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남한이 평화를 원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원하지만,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밀려 평화를 구걸해야 하느냐 하는 딜레마가 있다. 남한이 북한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은 민족동조를 강조하며 느슨한 한미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핵 개발은 세계 각국의 첨예한 관심사가 되고 미

국의 강경한 태도는, 한국 정부가 기조로 하고 있는 햇볕정책과 남북교류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촛불시위로 반미감정을 파악하게 된 미국은, 한국이 원한다면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힌 상태이다. 미국 정부는 9.11 테러 이후 이라크, 북한,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였고,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선제 공격이 시작된 시점에서, 한국 사회 내에서는 석유와 패권을 위한 전쟁에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는 시민의 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국제 사회 규범의 큰 틀에서 한국의 국가적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남-남 갈등의 해소와 국민적 합의의 도출이라는 큰 과제를 한국 사회는 안고 있다.

그런데 한국 내에 민주화의 추세 속에서 수평적 한미관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급부상하고, 일방적이고 사대적이고 종속적인 한미관계가 아닌 대등한 동맹관계에 대한 요구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드세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에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며 과거 1970년대부터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제국주의인 미국에 종속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의 주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어왔다. 이러한 미국에 대한 거부는 대학생 중에서도 소위 학생 운동권에 속하는 일부 대학생들의 데모 이슈로 간주되어 왔고, 대학생 외의 청소년이나 성인들은 그러한 문제에 큰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1999년 미군의 한국전쟁 중 노근리 양민 학살사건의 문제제기, 2000년 메카시 상병의 이태원 여종업원 살해 사건, 2000년 매향리 사격장 사건, 주한미군시설과 관련된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일반인들의 미군에 대한 인식이 점차 부정적으로 형성되었다. 2002년 1월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김동성 선수가 금메달을 실격하고 미국 선수가 획득한 것을 계기로 미국에 대한 거부감이 운

동권 대학생이 아닌 일반 청소년들에게 유행처럼 번졌다. 1980년대 반미운동이 주한미군 철수 등의 이슈를 내세운 사회운동적 성격의 '운동권 반미'였다면 최근의 반미운동은 미국의 소비문화에 대한 다수 청소년들의 반발과 인터넷 공간에서의 미국 상품 불매운동 등 '문화 반미'의 특징을 띄고 있다. 서울의 맥도널드 대리점에서는 실제 동계올림픽 이후 매출의 5% 가량 줄었으며, 미국 제품 불매 목록에는 맥도널드 켄터키후라이드치킨 던킨도너츠 스타벅스 코카콜라등의 식음료에서부터, 폴로 나이키 리바이스 케이스 등 잡화까지 다양하였다(허문명, 이승현, 조이영, 2002, 3, 7). 그런 와중에서 2002년 6월 한국에서의 월드컵 4강 승리는 한국 사람에게 한을 푸는 대축제와 같았으며, 세계 역사 속의 주변국이 아니라 세계 무대의 중심에 있는 국가라는 놀라운 자긍심을 한국 사람들이 갖는 계기가 되었다. 특별히 미국과의 경기에서 후반전에 안정환 선수가 동점골을 넣은 후 '오노 골 세레머니'는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사람들이 느낀 미국에 대한 분노를 해학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전국의 한국 사람들을 열광시키고 통쾌하게 만든 해프닝이었다.

한편 정치적 상황도 한국 사람들의 반미감정 형성에 많은 영향을 준 환경요인으로 보인다. 2000년 3월에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남북간 화해 협력을 위한 베를린 선언을 발표하고, 동시에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대화를 제의하였다. 그리고 곧 이어 2000년 6월에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되었으며, 2000년 8월에 제 1차 이산가족 방문단이 상봉하기 시작하여, 2002년 9월까지 5차 상봉행사까지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봉의 현상이 메스컴으로 전해지면서, 한국 사회 전체가 흥분과 감동으로 물결치는 듯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한 사람들은 잔인한 공산당으로서의 북한

사람이 아니라 한민족으로서의 북한 사람에 대한 애뜻한 국민적 정서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화해와 포용의 자세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한다는 햇볕정책의 이념적 틀을 기반으로 한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하게 가까워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2001년 보수주의 공화당 부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미국 정부는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급선회하여 대북 강경입장을 견지함으로써, 한국과 미국 정부간에 갈등이 싹트게 되었다. 게다가 2003년 2월에 한국은 민주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의 기본 이념을 견지하면서 수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므로써 북한 문제 접근과 해결에서 미국 정부와 미묘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었다.

이러한 국내외 정세의 급격한 변화 와중에서, 2002년 12월에 미군 장갑차에 치여 여중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 후 사고를 낸 미군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된 사건은, 대학생만이 아닌 전 국민에게 강한 반미감정을 형성하고 표현하는 직접적인 계기로 발전하였다.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사건을 널리 알리므로써 반미감정은 국민적 여론으로 급격히 확산되었다. 시청 앞에서는 사망한 여중생들의 혼을 기리며 불평등한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에 대한 거부와 개정을 촉구하는 촛불시위가 연일 이어졌다. 그런데 과거의 반미운동과의 큰 차이점은 촛불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단지 운동권 위주의 일부 대학생이 아니라 어린 초등학교생에서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었으며, 아버지들은 어린 아이를 안고 가족모임을 하듯 가족 단위로 참석한 경우도 많았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반미시위에서와 같이 돌멩이와 방망이와 체류탄이 난무하는 과격한 폭력적 시위가 아니라, 촛불을 들

고 평화적인 시위를 시도하였다는 점이 크게 달랐다. 시위에 참석한 규모도 과거 어느 때의 반미집회보다 많아, 서울 시청 앞에서만 하루에 10만 인파가 모이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시위는 전국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위가 끝난 뒤에, 시위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쓰레기를 주워가서 더 이상의 청소가 필요없이 깨끗하였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그동안 다져진 교육력을 기초로 시민의식의 성숙한 변화를 꾀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변한 사회풍토 속에서 대등한 한미관계에 대한 욕구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목적과 내용

한국 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은 주로 어떠한 사회적 표상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최근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미감정이, 한국 사람의 미국에 대한 인식을 대표하는가? 한국 사람의 미국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어떠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세대집단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이 연구는 출발하였다. 최근에 들어 '반미감정'이라는 용어는 매스컴을 중심으로 많이 보도되었지만, 과연 한국 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보다 심리학적인 분석 결과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한국 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을 통해 "반미감정"의 심리적이고 사회적이며 문화적인 토대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미감정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중학생과 대학생 및 성인들의 미국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한국 청소년과 성인 세대가 미국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인식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한국 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미국에 대한 인식이란, 미국 자체에 대한 인식과 미국의 영향에 대한 인식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의미한다. 미국 자체에 대한 인식은, 미국 사회에 대한 인식, 미국 사람에 대한 인식, 및 미국에 대한 신뢰의식을 포함하고자 한다. 미국의 영향에 대한 인식은, 한국 사회에 대한 영향, 한국의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영향, 및 세계에 대한 영향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다. 이러한 각각의 변인들에 대해 요인분석을 통해 밝혀질 요인들의 속성은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반미감정의 의미를 나타내어 준다. 또한 그러한 요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정도를 통해 한국 사람들의 반미감정의 강도를 탐색해 볼 수 있다. 둘째, 중학생 대학생 성인세대 집단별, 정치만족도수준 집단별 미국에 대한 지식정도 집단별로, 미국에 대한 인식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

이라크전쟁 이후 국내외적으로 반미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반미주의와 관련된 국내의 학술적인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진웅(1994)은 한국에 두가지 종류의 반미주의가 있다고 보고, 미국의 특정한 정책이나 행동에 대해 반대 의사를 보이고 분노를 표시하는 감정적인 반미주의와, 미국 자체를 사악한 제국주의 국가로 보고 미국의 존재 자체를 부인 반대하는 이데올로기적인 반미주의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소수의 급진적인 대학생들이 격렬한 이데올로기적인 반미주의를 나타내는 반면에,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은 한미관계의 여러 상황에 대해 그 때 그 때 미국을 비판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반미주의는 반미감정으로 이해되어야 옳다고 하였다. 김진웅(1994)의 분류는 반미주의에 대한 세분화를 시도한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느끼고 경험하는 미국에 대한 인식을 심리적인 면에서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내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 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에 관련된 전반적인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 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은 1990년대 또는 1980년대 등 여러 시기에 연구되어 왔으나, 여기에서는 최근 본 연구와 동일한 시기에 토착심리학적 접근방법을 통해 실시된 연구 결과들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과거의 미국에 대한 인식은 그 당시의 사회적 사건과 환경에 밀접히 관련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미국에 대한 인식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연구결과들이 가장 정확한 참고가 되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이러한 미국에 대한 인식이 세대집단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에 초점을 두고 보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 사람의 미국에 대한 인식〉

토착심리학적 접근방법(김의철, 2000)을 통해, 최근 한국 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결과들이 있다. 박은실(2003)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다. 미국 사회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이러한 경향은 성별로나 학업성취수준로나 모두 동일하였다. ‘거부감’ 외에도 ‘배타적 우월

주의’의 면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사회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예컨대 ‘선진 강대국’이라든가, ‘자유로운 사회’ ‘민주주의 사회’ ‘합리적인 사회’라는 면에서, 비록 상대적으로 반응율이 낮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 청소년들의 미국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미국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관련이 있었다. 박은실(2003)의 연구에서 중학생들은 미국 사람에 대해 ‘호감이 감’ ‘자유로움/다양함’ ‘합리주의’와 같은 긍정적인 인식도 있었으나, ‘거부감’을 가장 많이 느꼈으며, 그 다음으로 ‘이기주의/개인주의’ ‘배타적 우월주의’의 순서였다.

이와같이 미국 사회와 미국 사람에 대한 거부감은 미국 문화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학생들은 미국 문화에 대해 ‘거부감’을 느낀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우수한 문화’ ‘저속한 문화’ ‘모르겠음’ ‘문화적 다양성’ ‘자유로운 문화’ ‘배타적 우월주의’의 순서로 나타났다(박은실, 2003).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미국 문화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청소년과 우수한 문화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학업성취도와 성별에 따라 미국 문화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즉 학업성취수준이 높은 중학생일수록 미국 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와는 반대로 학업성취수준이 낮은 중학생일수록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성별로도 남자 중학생은 보다 부정적으로, 여자 중학생은 보다 긍정적으로 미국 문화를 평가하였다.

한국에 있는 미군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중학생들은 ‘거부감’ 느낀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는

데, 과반수 이상의 높은 반응율을 나타내었다(박은실, 2003). 그 다음으로 '미군 철수' 한국을 무시하는 '우월의식'과 같이 부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의 반응율을 차지하였다. 한국이 미군의 '도움'을 받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절충적인 태도가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미군주둔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왔지만, 5%에도 못 미치는 매우 낮은 반응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 청소년들이 미국 사회나 미국 사람, 그리고 미국 문화와 한국 주둔 미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인 표상은 매우 부정적이며, 그러한 부정적인 정서는 '거부감'으로 집약된다. 특히 한국에 있는 미군에 대한 거부감이 현저하였다. 미국 문화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우수한 문화라는 평가를 하었는데, 학업성취가 높은 학생일수록, 그리고 남학생일수록 미국 문화에 대해 더욱 부정적이었다.

한편 이은희(2003)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을 고등학생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도, 부정적인 인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국 사회에 대한 영향의 내용을 질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사대주의/모방'이 가장 높은 반응율을 나타내었으며, 그 다음으로 '막대한 영향력' '부정적 영향 미침' '간섭/무시' '모르겠음' '영향받지 않음' '긍정적 영향: 개방화' '반미감정 유발'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든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인식은 매우 낮았으며, 부정적 인식 중에서도 특히 사대주의나 모방에 대한 거부감이 높았다.

한국 문화에 대한 미국의 영향에 대해서도 한국 사회에 대한 영향과 마찬가지로, '모방/사대주의'라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막대한 영향력/대중문화 영향' '전통문화 상실'의 순서를 나타내었다. 한국 경제에 대한 미국의 영향

과 관련해서는 '미국에 경제적 종속'이라는 반응을 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 정치에 대한 영향으로는 '미국에 정치적 종속'이라는 반응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한국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에 대한 미국의 영향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을 종합해 보면, 미국 사회자체에 대한 인식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영향을 매우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정적인 인식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회적 표상은 사대주의나 모방, 종속상태에 대한 거부감이 내포되어 있었다.

이와같은 질적 분석 방법을 통한 연구 외에, 최근에 미국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양적인 연구 결과들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연숙(2003)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중학생 집단 경우에는 학업성취수준에 관계없이, 성인집단 경우에는 사회경제적지위에 관계없이 모두, 미국 기관이나 미국 사람에 대해 매우 신뢰하지 않았다. 또한 미국이 민주사회라는 긍정적인 문항에 대해서도 5점 척도에서 3점 미만의 낮은 반응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성취수준의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의 영향을 중학생과 부모집단 중심으로 양적 분석한 서형진(2003)의 연구결과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것이었다. '한국 사회에 대한 미국의 영향'을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된 것으로 인식하는 정도는 낮았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이 '종속관계'에 있다든가 '전통문화 상실'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는 높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미국의 영향'에 대해서는, 미국이 오히려 '통일에 방해' 된다는가, 미국이 '지나친 간섭'을 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였다. 한국 사회에 대한 영향 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한 미국의 영향'에

대해서도, 미국을 '제국주의'라고 보는 정도는 높았으며, '정의 수호'를 위해 노력하는 국가라는 인식은 희박하였다. 어쨌든 미국이 '초강대국'이라는 점에서는 높은 지지를 하였다.

한국 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이나, 미국이 한국 및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양적으로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 미국이 초강대국이라는 점을 한국 사람들은 인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사대주의 정신으로 전통문화가 상실되는 현상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다. 미국 사람이나 미국 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았으며, 한국의 남북관계나 통일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입장이 높은 지지를 받았다.

〈세대집단별 미국에 대한 인식의 차이〉

한국 사회에서의 세대차 문제에 대한 연구들은 여러 주제들을 심리학적 시각에서 다루어 왔다. 예컨대 한국 문화의 이중구조가 심화된 이유 중의 하나로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한 세대간의 차이 문제로 접근한 연구(나은영, 민경환, 1998)라든가, 대학생과 부모의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및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연구(정태연, 2001) 및 청소년과 성인간의 심리 행동특성에서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밝힌 연구(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2000)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있어 세대차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고려대 평화연구소(1989)에서 약 15년 전에 반미의식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세대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군의 한반도 평화유지 역할'에 대해서 50대 이상은 68.6%로 긍정적인 반응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40대는 66.9%, 30대는 62.4%로서, 젊은 세대일수록 미군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밝

혀졌다.

최근 세대집단별 미국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검토한 연구 결과들도, 일관되게 세대간의 차이를 밝히고 있다. 이은희(2003)에 의하면 성인 남자는 한국 사회에 대한 미국의 영향에 대해 '막대한 영향력'이라는 가치 중립적인 반응을 가장 많이 하고 '사대주의/모방'은 훨씬 낮은 반응율을 보였으며, 성인 여자도 '막대한 영향력'의 반응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청소년들은 '사대주의/모방'이라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한국 경제에 대한 미국의 영향에 대해서도, 한국 사회에 대한 반응과 마찬가지로 성인 남자와 여자 모두 '막대한 영향력'이라는 반응을 가장 많이 한 반면, 청소년은 '미국에 경제적 예측'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가장 많이 하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박은실(2003)의 연구에서도 이은희(2003)의 연구에서와 유사한 결과들이 밝혀졌다. 즉 청소년들은 미국 사회에 대한 인식에 있어 '거부감'을 느낀다는 반응이 가장 많고, 미국 사회가 '배타적 우월주의'라고 하는 반응도 많으므로써 미국 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성인 남자집단에서는 미국 사회가 '자유로운 사회'라는 반응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선진 강대국' '민주주의 사회'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순서적으로 하고 있으며, '거부감'이나 '배타적 우월주의'라는 반응은 청소년보다 훨씬 적게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인 남자와 마찬가지로 성인 여자도 '자유로운 사회'에 대한 반응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선진 강대국'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하였으며, '거부감'이나 '배타적 우월주의'에 대한 반응율은 청소년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있는 미군에 대한 인식을 질문하였을 때, 청소년의 2.2%만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필

요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성인 남자의 20.4% 성인 여자의 15.4%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미군주둔에 대해 성인 집단이 청소년집단보다 훨씬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일련의 토착심리학적 접근을 시도한 두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청소년과 성인 세대집단간에 미국 자체에 대한 인식이 나, 한국 사회에 대한 미국의 영향에 대한 인식에 있어 질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최근에 한국의 여자 중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미국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양적 분석방법을 통해 검토한 이연숙(2003)의 연구에서도 청소년과 성인은 확연한 세대차이를 나타내었다. 세대별 미국 사회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미국 사회를 '민주시민사회'로 보는 시각에서 세대별로 차이가 있었다. 즉 청소년이 성인보다 더욱 미국 사회가 '민주시민사회'라는 것에 대한 낮은 평가를 하였다. 미국 사람에 대한 인식에서는 세대별로 '선진국민' '자유로움'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미국 사람을 선진국민이라고 보는 정도에 있어서도 청소년이 성인보다 더욱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성인이 청소년보다 미국 사람을 '자유롭다'고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미국 사람에 대한 신뢰'와 '미국 기관에 대한 신뢰'에서도 세대집단간에 차이를 보였는데, 청소년이 성인보다 미국 사람을 더욱 불신하였으며, 미국 기관에 대한 신뢰도 청소년이 성인보다 더욱 낮았다. 또한 미국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도 세대집단별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청소년이 성인보다 미국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이 더 적었다. 이연숙의 연구에서 밝혀진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청소년들이 성인보다 미국 사회를 더욱 민주시민사회로 인식하지 않고, 미국 사람을 더욱 선진국민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미국 사람이나 미국 기관을 더욱 신

뢰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므로써, 한국의 청소년들이 기성세대에 비해 미국에 대해 훨씬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구체적인 변인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청소년이 성인보다 부정적으로 미국을 인식하는 것으로 밝혀진 이은희(2003)의 연구와 같은 맥락의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서형진(2003)이 남녀 중학생과 부모집단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 사회에 대한 미국의 영향에 대해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 세대별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하위집단간 평균을 비교해 보면, 성인이 청소년보다 미국이 한국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을 하였다.

방 법

대상

이 연구를 위한 최종 분석대상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총 763명이 분석되었으며, 중학생 171명, 대학생 250명, 성인 342명으로 각각 성별집단을 포함하였다. 세대집단별 연령을 보면, 중학생의 평균과 최빈치는 13세, 대학생의 평균은 22세 최빈치는 19세, 성인의 평균은 41세, 최빈치는 40세이었다. 성인집단의 학력분포는 중졸 11.0%, 고졸 62.0%, 대졸 25.8%, 대학원졸 1.2%로 과반수

표 1. 분석대상

	중학생	대학생	성인	계
남	80	143	171	394
여	91	107	171	369
계	171	250	342	763

이상이 고졸이었다. 직업분포를 보면, 단순노동직이 14.1%, 자영업 35.6%, 사무직 11.9%, 기술직 20.0%, 관리직 7.8%, 전문직 10.7%로서, 자영업과 기술직이 가장 많았다.

도구

양적 질문지를 제작하기 위해 우선 자유반응형의 질적 질문지를 제작하여 대학생 50여명과 성인교사 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질적 질문지에서는 미국 사회와 미국 사람에 대한 인식, 미국에 대한 영향의 인식을 응답자가 직접 기록하도록 하였다. 반응을 분석하여, 내용이 타당하고 적절하며 여러 응답자에 의해 지적된 내용을 선별하여 표현을 수정하고 측정문항으로 제작하였다.

이러한 문항을 양적 질문지의 미국 사람(77문항)과 미국 사회(62문항)에 대한 인식, 미국 사람에 대한 신뢰(7문항), 미국 기관에 대한 신뢰(7문항), 한국 사회에 대한 미국의 영향(31문항), 한국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미국의 영향(29문항), 세계에 대한 미국의 영향(41문항)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하고,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해당하는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배경정보로는 성별, 연령, 학업성적, 학교수준(중, 고, 대), 군복무 여부, 직업, 교육정도, 가족의 소득, 정치만족도, 정치적 성향, 생활만족도, 데모참여 정도, 미국 비자 유무, 미국 방문 횟수, 미국 방문 기간, 미국에 있는 친척 수, 미국에 있는 친구 수, 유학경험 여부, 유학기간, 외국인에게 영어배운 경험, 미국 방송 시청 정도가 각각 1문항씩 측정되었다. 이외에 영어실력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4가지의 측면에서, 미국에 대한 지식정도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12가지의 측면에서 측정되었다.

표 2. 측정변인의 신뢰도

	중	대	성인
미국에 대한 지식	.87	.84	.89
미국 사회에 대한 인식			
성숙된 민주시민 사회	.88	.84	.90
상업주의	.89	.88	.91
강대국가	.85	.82	.88
저속한 대중문화	.71	.85	.75
능력중심 사회	.69	.75	.73
배타적 우월주의	.72	.72	.72
미국 사람에 대한 인식			
선진국민	.95	.91	.93
이기적	.90	.93	.92
자유로움	.91	.89	.89
실용적	.64	.64	.63
부러움의 대상	.76	.71	.73
강한 자부심	.61	.64	.61
미국에 대한 신뢰			
미국 사람 신뢰	.91	.84	.88
미국 기관 신뢰	.91	.87	.91
한국 사회에 대한 미국의 영향			
종속관계	.87	.82	.86
사대주의	.87	.81	.85
발전에도 도움	.83	.77	.74
전통문화 상실	.83	.73	.80
한국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미국 영향			
통일에 방해	.92	.91	.89
지나친 간섭	.87	.84	.87
북한에 대한 영향력 부족	.74	.73	.71
미국의 영향력 확대	.62	.52	.53
미국의 도움필요	.68	.55	.68
세계에 대한 미국의 영향			
제국주의	.95	.96	.95
초강대국	.87	.86	.85
정의수호	.72	.80	.75
문화적 지배	.71	.72	.67

미국 사회에 대한 인식, 미국 사람에 대한 인식, 미국에 대한 신뢰, 한국 사회에 대한 미국의 영향, 한국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미국의 영향, 세계에 대한 미국의 영향을 요인분석하여 요인부하량 1.0 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부하량을 scree test하고, 요인의 내용타당도를 고려하여 요인 수를 확정하였다. 각 요인들을 구성하는 문항의 내용을 고려하여 요인을 대표하는 적합한 하위변인명을 결정했다 (표 2 참고).

표 2는 각 하위변인별로 Cronbach α 계수를 구한 결과이며, 중학생 대학생 성인집단별로 제시되어 있다. '미국에 대한 지식'은 $\alpha=.84 \sim .89$, '미국 사회에 대한 인식'은 $\alpha=.69 \sim .80$, '미국 사람에 대한 인식'은 $\alpha=.61 \sim .95$, '미국에 대한 신뢰'는 $\alpha=.84 \sim .91$, '한국 사회에 대한 미국의 영향'은 $\alpha=.73 \sim .87$, '한국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미국의 영향'은 $\alpha=.52 \sim .92$, '세계에 대한 미국의 영향'은 $\alpha=.67 \sim .96$ 으로 나타났다. '한국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미국의 영향' 중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와 '미국의 도움 필요' 두 하위변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양호한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실시 및 분석방법

질문지는 2002년 12월에 실시되었다. 연구자가 중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에 질문지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하였다. 성인은 중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수거된 질문지 중에 응답태도가 불성실한 질문지는 제외되었다. 통계분석을 위해 학업성적, 데모참여정도, 영어실력 변인은 역산처리하였다. 영어실력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능력에 대한 응답을 모두 합산하였다. 사회경제적지위는 학력

직업,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였다. 학업성적은 학생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집단별 미국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3원변량분석에서, 세대별 집단은 각 응답자가 소속한 중학생(22.4%), 대학생(32.8%), 성인(44.8%) 집단의 기준을 활용하였다. 정치만족도별 집단은 매우 불만족(17.7%)과 불만족(48.9%)을 합하여 불만족집단과 보통집단(31.9%)의 두 하위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질문지의 답지에는 만족(0.9%)과 매우 만족(0.5%)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반응율이 1.0% 미만의 극소수였기 때문에 하위집단으로 분류되지 못하였다. 미국에 대한 지식정도별 집단은 전혀 모른다(9.1%)와 거의 모른다(41.9%)를 합하여 '모른다' 하위집단과, 약간 안다(45.8%)와 상당히 안다(3.1%)를 합하여 '안다' 하위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질문지의 답지에는 '매우 잘 안다'는 답지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응답자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위집단 분류에서 제외되었다.

결 과

미국에 대한 인식과 관련 배경변인들간의 상호상관

미국에 대한 인식과 관련 배경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표 3이다. 표 3에 제시된 바처럼, 연령과 정치만족도 및 미국에 대한 지식은 미국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대부분의 하위변인들과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많을수록 미국 사회를 민주시민사회로, 미국 사람은 선진국민으로 인식하고, 미국의 기관 및 미국 사람에 대해 더욱 신뢰하고, 미국은 한국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며, 세계의 정의를 수호하는 나라로 인식되었다. 반면에 연령이 적을

표 3. 미국에 대한 인식과 관련 배경변인들간의 상호상관

	성별	연령	학업 성적	SES	생활 만족도	정치 만족도	정치 성향	데모참여 정도	미국방문 기간	영어 실력	미국에 대한 지식
미국 사회에 대한 인식											
민주시민 사회	-.02	.36***	.10*	.06	-.03	-.03	.05	.10**	.13*	-.09*	.35***
상업주의	.00	-.11**	.14**	.05	-.11**	-.19***	.01	.05	-.06	.02	.14***
강대국가	-.03	.15***	.15**	.07	-.05	-.10**	.01	.07*	.08	-.11**	.30***
저속한 대중문화	.00	-.08*	.09	.08	-.05	-.07	.00	.04	-.05	.08*	.07
능력중심 사회	.02	.14***	.04	-.01	-.05	-.08*	-.05	.06	.11*	-.10*	.27***
배타적 우월주의	.06	.03	.15**	-.03	-.09*	-.21***	.01	.06	-.03	-.04	.16***
미국 사람에 대한 인식											
선진국민	-.04	.27***	.13**	.09	-.01	-.04	.04	.08*	.18***	-.01	.34***
이기적	.07	-.13***	.01	.04	-.08*	-.10**	-.01	.00	-.16***	-.02	-.02
자유로움	.02	.14***	.13*	.09	-.04	-.14***	.02	.08*	.10	-.06	.36***
실용적	.02	.10**	.12*	.14*	-.04	-.17***	.00	.08*	.13***	-.03	.34***
부러움의 대상	.09*	.12***	.02	.02	-.05	-.04	.04	.03	.05	-.11***	.15***
강한 자부심	.00	.07	.09	.01	-.04	-.14***	.04	.07	.06	-.01	.20***
미국에 대한 신뢰											
미국 사람 신뢰	-.06	.29***	.05	.10	.05	-.06	.03	.08*	.06	-.08*	.24***
미국 기관 신뢰	-.07	.31***	.04	.06	.00	-.07	.05	.09*	.08	-.10**	.23***
한국 사회에 대한 미국의 영향											
종속관계	-.06	-.06	.11*	.04	-.16***	-.27***	-.08*	.05	.00	-.10**	.12***
사대주의	-.01	-.01	.02	.04	-.05	-.11**	.01	.02	.01	-.01	.11**
발전에 도움	-.08*	.18***	.00	.12	-.01	.01	.01	.02	.10*	-.05	.19***
전통문화 상실	.01	-.09*	.04	.02	-.07*	-.14***	-.04	.05	.09	-.01	.18***
한국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미국의 영향											
통일에 방해	-.03	-.23***	.04	-.03	-.13***	-.21***	-.05	.01	-.05	-.06	.02
지나친 간섭	-.01	-.10**	.06	.01	-.16***	-.25***	-.08*	.04	.02	-.07	.11**
북한에 대한 영향력 부족	-.03	-.08*	.03	.00	-.02	-.16***	-.09*	.04	.03	-.06	.10*
미국의 영향력 확대	-.09*	.04	.00	.04	-.06	-.16***	-.04	.06	.01	-.05	.20***
미국의 도움필요	-.08*	.06	-.02	.02	-.17***	-.21***	-.02	.03	-.01	-.10*	.16***
세계에 대한 미국의 영향											
제국주의	.06	-.17***	.08	-.07	-.14***	-.18***	-.05	.00	.01	-.04	.03
초강대국	-.02	.04	.09	.02	-.12***	-.22***	-.06	.04	.11*	-.13***	.24***
정의수호	-.06	.31***	-.01	.06	.03	.05	-.04	-.03	.08	-.13***	.13***
문화적 지배	.01	-.04	.06	-.03	-.06	-.09*	-.04	.03	.07	-.03	.10***

* $p < .05$, **는 $p < .01$, ***는 $p < .001$

수록, 미국 사회는 상업주의적이고 미국 사람은 이기적이며, 한국의 남북관계와 통일에 미국이 방해가 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며, 세계에 대한 미국의 영향은 제국주의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치만족도와 미국에 대한 인식의 상관관계를 보면, 정치만족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미국 사회가 배타적 우월주의가 강하며, 미국 사람들이 실용적이고, 미국의 영향으로 한국 사회가 미국에 대해 종속관계에 있으며, 한국의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해 미국이 지나치게 간섭하며, 세계에 대해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미국에 대한 지식정도와 미국에 대한 인식의 관계를 보면, 미국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미국 사회를 민주시민 사회로, 강대국가로 인식하였으며, 미국 사람에 대해 자유롭고 선진국민이며 실용적이라는 인식을 하였고, 미국 사람과 미국 기관을 더욱 신뢰하였다. 미국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미국이 한국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지만 동시에 한국의 전통문화가 상실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지적하였으며, 한국의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해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았으며,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미국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미국이 세계에 대해 초강대국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연령, 정치만족도, 미국에 대한 지식과 같이 상관관계수가 높지는 않지만 미국에 대한 인식의 하위변인들과 부분적인 관계를 보이는 배경변인들이 있다. 학생은 업성적이 좋을수록 미국 사회가 강대국가이며 배타적 우월주의가 강한 사회라고 보았으며, 미국 사람을 더욱 선진국민이고 자유롭다고 보았다. 사회경제적지위는 높을수록 미국 사람을 실용적으로 생각하였다. 생활만족도는 낮을수록 한국이 미국에 종속관계에 있고, 남북관계와 통일에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보았다. 미국 방문기간이 길수록 미국 사람을 선진국민이라고 지각하며 이기적이라고 보지 않았다. 영어실력은 적을수록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정의를 수호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성별, 사회경제적지위, 정치성향, 데모참여정도는 미국에 대한 인식의 다양한 하위변인들과 $r=.10$ 미만의 값들을 나타내므로써 거의 무상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별이나, 사회경제적지위의 고하, 정치성향의 우경화나 좌경화, 데모에 참여한 정도에 따라서는 미국에 대한 인식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3에서 미국에 대한 인식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세변인, 즉 연령, 정치만족도, 미국에 대한 지식이 다른 배경변인들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연령이 많을수록 외국인에게 영어를 배운 경험이나 영어실력은 적었으며, 미국에 대한 지식과 데모참여 정도는 더 많았다. 정치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미국에 대한 지식은 학생의 경우에 성적이 좋을수록, 성인의 경우는 학력이 높을수록 많았으며, 미국에 있는 친구 수나 미국 방문횟수 및 외국인에게 영어를 배운 경험이나 영어실력이 많을수록 미국에 대한 지식이 많았다.

미국에 대한 인식

미국 사회에 대한 인식

집단별 미국 사회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삼원변량분석한 결과가 표 4이다. 세대별로 보면, 저속한 대중문화를 제외한 나머지 5개 하위변인 모두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정치만족도별로는 배타적 우월주의와 상업주의에서 차이를 보였다. 미국에 대한 지식정도별로는 민주시민사회 강대국가, 능력중심사회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를

표 4. 세대별 정치만족도별 미국 지식정도별 미국 사회에 대한 인식의 차이

독립변인		df	MS	F	
민주시민 사회	세대별	2	13.45	34.56	***
	정치만족도별	1	.02	.06	
	미국 지식정도별	1	6.94	17.82	***
상업주의	세대별	2	6.67	15.02	***
	정치만족도별	1	2.39	5.38	*
	미국 지식정도별	1	2.80	6.30	*
강대국가	세대별	2	15.51	26.00	***
	정치만족도별	1	.02	.03	
	미국 지식정도별	1	9.22	15.46	***
저속한 대중문화	세대별	2	2.78	5.28	**
	정치만족도별	1	.09	.17	
	미국 지식정도별	1	.85	1.62	
능력중심 사회	세대별	2	9.97	16.26	***
	정치만족도별	1	.10	.16	
	미국 지식정도별	1	7.69	12.56	***
배타적 우월주의	세대별	2	3.74	8.74	***
	정치만족도별	1	3.34	7.81	**
	미국 지식정도별	1	2.36	5.52	*

*는 $p < .05$, **는 $p < .01$, ***는 $p < .001$

상업주의와 배타적 우월주의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5에서 미국 사회에 대한 인식의 하위변인별 평균을 비교해 보면, 강대국가 상업주의의 평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배타적 우월주의, 능력중심사회의 순이었으며, 민주시민사회의 평균이 가장 낮았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미국을 강대국가로 인식하며, 이외에도 상업주의, 배타적 우월주의, 능력중심사회라는 인식을 하였다.

하위집단별 평균을 보면, 세대별 집단에서 중

학생은 민주시민사회, 강대국가, 능력중심사회에서 모두 가장 낮은 평균을 보였다. 성인은 민주시민사회에서는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이고, 상업주의와 저속한 대중문화에서는 세 집단 중에 가장 낮은 평균을 보였다. 따라서 세대별로 중학생이 미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 즉 강대국가라든가 능력중심사회라든가 또는 민주시민사회라는 인식을 가장 적게 하였으며, 성인일수록 미국 사회를 상업주의라든가 저속한 대중문화와 같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은 낮고, 오히려 민주시민사회와 같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정치만족도 수준 집단별로는 불만집단이 보통 집단보다 상업주의나 배타적 우월주의에서 더 높은 평균을 보였다. 그러므로 한국 정치에 대해 불만을 갖는 집단일수록 미국 사회를 더욱 상업주의로, 배타적 우월주의가 강한 것으로 인식하므로써, 결국 더욱 미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에 대한 지식정도별로 보았을 때, 미국에 대해 안다는 집단이 모른다는 집단보다 훨씬 민주시민사회, 강대국가, 능력중심사회에 대한 평균이 높았다. 반면에 저속한 대중문화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고, 상업주의 배타적 우월주의에서는 낮은 유의도를 나타내었다. 즉 민주시민사회라든가 강대국가 또한 능력중심사회와 같이 미국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서는 미국에 대해 아는 집단이 높은 평균을 보이고, 저속한 대중문화와 같이 부정적인 인식에서는 미국에 대해 아는 집단과 모른다는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외에 상업주의나 배타적 우월주의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에서는 미국에 대해 아는 집단이 약간 평균이 높았지만, 긍정적인 인식에서처럼 큰 차이는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회에 대해 강대국가라는 생각을 많이

표 5. 세대별 정치만족도별 미국 지식정도별 미국 사회에 대한 인식 평균과 표준편차

	세대별 집단						정치만족도 수준별 집단				미국에 대한 지식정도별 집단				전체	
	중학생		대학생		성인		불만		보통		모른다		안다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민주시민 사회	2.26	(.70) ^a	2.88	(.52) ^b	3.03	(.69) ^c	2.84	(.69)	2.74	(.74)	2.64	(.72)	2.97	(.64)	2.80	(.71)
상업주의	3.65	(.79) ^a	3.95	(.52) ^b	3.60	(.72) ^a	3.83	(.66)	3.55	(.74)	3.64	(.73)	3.81	(.64)	3.73	(.70)
강대국가	3.18	(.96) ^a	4.09	(.57) ^c	3.79	(.84) ^b	3.85	(.82)	3.60	(.91)	3.59	(.92)	3.92	(.76)	3.75	(.86)
저속한 대중문화	3.13	(.83) ^b	3.23	(.70) ^b	3.03	(.70) ^a	3.16	(.73)	3.06	(.75)	3.07	(.74)	3.16	(.72)	3.12	(.74)
능력중심 사회	3.01	(1.00) ^a	3.75	(.63) ^b	3.59	(.80) ^b	3.58	(.80)	3.38	(.91)	3.36	(.89)	3.66	(.77)	3.51	(.85)
배타적 우월주의	3.29	(.82) ^a	3.70	(.54) ^c	3.50	(.67) ^b	3.63	(.65)	3.34	(.72)	3.41	(.73)	3.62	(.61)	3.52	(.69)

a, b, c는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에 기초하여, 동질집단을 표시한 것임.

하며, 이외에도 상업주의나 배타적 우월주의가 강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세대별로는 젊을수록, 우리나라에 대한 정치만족도가 낮을수록, 미국에 대한 지식은 적을수록 미국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사람에 대한 인식

표 6은 세대별 정치만족도별 미국 지식 정도별 미국 사람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세대별로 ‘선진국민’ ‘이기적’ ‘자유로움’ ‘실용적’ ‘부러움의 대상’ ‘강한 자부심’에서 매우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으며, 정치만족도별로는 ‘이기적’ ‘실용적’에 대해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미국에 대한 지식수준별로는 ‘선진국민’ ‘자유로움’ ‘실용적’에서 매우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인들의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집단의 평균을 보면, 이기적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강한 자부심, 자유로움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에 대해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며 그 다

음으로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며 자유로운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대별 하위집단간 차이를 보면, 중학생이 ‘선진국민’ ‘자유로움’ ‘실용적’ ‘부러움의 대상’ ‘강한 자부심’에서 대학생이나 성인보다 낮은 평균을 나타내었고, ‘이기적’에 대해서는 두 집단보다 높은 평균을 보였다. 그러므로 중학생은 대학생이나 성인보다 미국 사람을 이기적이라고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이와 반대로 미국 사람을 선진국민이라든가 자유롭다든가 실용적이라든가 강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부러움의 대상과 같은 긍정적인 시각은, 대학생이나 가장 적었다.

정치만족도수준 집단별로 보면 불만집단이 보통집단보다 ‘이기적’에 대한 평균값이 훨씬 높으며, ‘실용적’에 대한 평균도 약간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정치에 대해 불만하는 사람들일수록 미국 사람이 이기적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에 대한 지식정도별로는 안다는 집단이 모른다는 집단보다 ‘선진국민’ ‘자유로움’ ‘실용적’

표 6. 세대별 정치만족도별 미국 지식정도별 미국 사람에 대한 인식의 차이

독립변인		df	MS	F
선진국민	세대별	2	6.26	19.36 ***
	정치만족도별	1	.13	.40
	미국 지식정도별	1	7.11	21.99 ***
이기적	세대별	2	5.86	13.00 ***
	정치만족도별	1	5.58	12.37 ***
	미국 지식정도별	1	.94	2.08
자유로움	세대별	2	14.77	30.98 ***
	정치만족도별	1	.15	.31
	미국 지식정도별	1	11.31	23.73 ***
실용적	세대별	2	23.05	44.19 ***
	정치만족도별	1	2.62	5.02 *
	미국 지식정도별	1	8.94	17.14 ***
부러움의 대상	세대별	2	10.03	6.70 ***
	정치만족도별	1	.04	.02
	미국 지식정도별	1	2.96	1.98
강한 자부심	세대별	2	7.16	10.43 ***
	정치만족도별	1	1.93	2.81
	미국 지식정도별	1	1.96	2.86

*는 $p < .05$, ***는 $p < .001$

에서 훨씬 높은 평균을 보였다. 이는 미국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미국 사람을 더욱 선진국민이고 자유로우며 실용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전체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보지만, 매우 이기적이라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미국 사람을 선진국민이라든가 부러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정도는 매우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람들의 미국 사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대별로는 대학생이나 성인보다 어린 중학생이 미국 사람을 선진국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은 이기적이라고 보므로써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정치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미국 사람에 대해서도 이기적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다. 미국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미국 사람을 자유롭고 실용적이며 선진국민이라고 평가하나, 선진국민

표 7. 세대별 정치만족도별 미국 지식정도별 미국 사람에 대한 인식 평균과 표준편차

	세대별 집단						정치만족도 수준별 집단		미국에 대한 지식정도별 집단		전체					
	중학생		대학생		성인		불만		보통			모른다		안다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선진국민	2.30	(.81) ^a	2.87	(.44) ^b	2.86	(.59) ^b	2.75	(.63)	2.69	(.68)	2.58	(.65)	2.89	(.58)	2.72	(.65)
이기적	3.84	(.77) ^b	3.55	(.61) ^a	3.54	(.69) ^a	3.67	(.67)	3.50	(.72)	3.60	(.72)	3.61	(.68)	3.61	(.69)
자유로움	2.99	(.99) ^a	3.91	(.53) ^c	3.57	(.69) ^b	3.63	(.79)	3.37	(.79)	3.35	(.85)	3.75	(.68)	3.53	(.81)
실용적	2.60	(.93) ^a	3.69	(.59) ^c	3.15	(.76) ^b	3.31	(.87)	2.98	(.79)	2.99	(.86)	3.42	(.79)	3.19	(.87)
부러움의 대상	2.38	(1.39) ^a	3.18	(1.18) ^b	2.98	(1.16) ^b	2.97	(1.27)	2.79	(1.24)	2.78	(1.28)	3.04	(1.25)	2.90	(1.27)
강한 자부심	3.19	(1.12) ^a	3.85	(.68) ^c	3.55	(.83) ^b	3.67	(.85)	3.39	(.92)	3.46	(.92)	3.68	(.83)	3.57	(.90)

a, b, c는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에 기초하여, 동질집단을 표시한 것임.

이라고 보는 정도는 전체적으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미국에 대한 신뢰

미국에 대한 신뢰는 미국 사람 신뢰와 미국 기관 신뢰의 두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이 두 변인 모두에 대해 세대별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정치만족도별로는 차이가 없고, 미국 지식정도별로는 차이가 있었다. 표 9는 각 하위집단별 미국에 대한 신뢰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결과이다. 전체 평균을 보면 미국 사람과 미국 기관에 대한 신뢰가 모두 매우 낮았다. 세대별로는 중학생이 가장 낮은 평

균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대학생이 높고 성인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다른 집단에 비해 성인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에 대한 신뢰나 미국 기관에 대한 신뢰의 정도는 매우 낮았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지식정도별로는 미국에 대해 안다고 응답한 집단이 모른다는 집단보다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현재 한국 사람들의 미국 사람에 대한 신뢰나 미국 기관에 대한 신뢰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와같이 미국을 불신하는 경향은 나이가 어릴수록 강하여, 중학생이 가장 불신하는 정도가 높았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지식이 적을수록 불신의 경향이 더 있었다.

표 10은 부모와 자녀가 미국에 대한 인식에서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이상에서 분석한 각각의 변인들에 대해 부모와 자녀들의 인식을 상관관계로 구한 결과이다.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버지 집단은 미국 사람을 선진국민으로 인식하는 데 있어 자녀들과 $r=-.20$ 의 부적의 상관을 보였고, 미국 사람을 이기적이라고 보는 점에서 $r=.22$ 의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어머니 집단도 미국 사람을 이기적이라고 인식하는 데에서 자녀와 $r=.22$ 의 정적인 관계를, 미국 사람들이 강한 자부심을 갖고

표 8. 세대별 정치만족도별 미국 지식정도별 미국에 대한 신뢰의 차이

독립변인		df	MS	F
미국 사람 신뢰	세대별	2	9.10	17.51 ***
	정치만족도별	1	.31	.59
	미국 지식정도별	1	5.30	10.19 ***
미국 기관 신뢰	세대별	2	14.01	22.47 ***
	정치만족도별	1	.50	.79
	미국 지식정도별	1	3.07	4.93 *

*는 $p < .05$, ***는 $p < .001$

표 9. 세대별 정치만족도별 미국 지식정도별 미국에 대한 신뢰 평균과 표준편차

	세대별 집단						정치만족도 수준별 집단				미국에 대한 지식정도별 집단				전체	
	중학생		대학생		성인		불만		보통		모른다		안다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미국사람 신뢰	1.64	(.81) ^a	2.20	(.61) ^b	2.30	(.79) ^b	2.15	(.75)	2.06	(.84)	1.98	(.80)	2.25	(.72)	2.12	(.79)
미국기관 신뢰	1.62	(.77) ^a	2.23	(.71) ^b	2.39	(.88) ^b	2.18	(.83)	2.10	(.91)	2.01	(.87)	2.30	(.81)	2.14	(.86)

a, b, c는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에 기초하여, 동질집단을 표시한 것임.

표 10. 부모와 자녀의 미국에 대한 인식 상관관계

자녀 \ 부모	부	모
미국 사회에 대한 인식		
민주시민 사회	-.01	.13
상업주의	.08	.07
강대국가	.11	.16
저속한 대중문화	-.04	.08
능력중심 사회	.09	.06
배타적 우월주의	.01	.02
미국 사람에 대한 인식		
선진국민	-.20*	.00
이기적	.22**	.22**
자유로움	.04	.02
실용적	.00	.04
부러움의 대상	.00	.06
강한 자부심	.04	.18*
미국에 대한 신뢰		
미국 사람 신뢰	.00	.09
미국 기관 신뢰	.07	.14

*는 $p < .05$, **는 $p < .01$

있다는 인식에서도 자녀와 약한 정적인 상관성이 있었다. 따라서 아버지집단이 미국 사람을 선진 국민이라고 지각할 수록 자녀세대는 그렇지 않게 지각하는 반대 경향을 보였다. 아버지나 어머니 집단 모두 미국 사람을 이기적이라고 인식하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었다.

그러나 이외에는 미국 사회에 대한 인식이나 미국 사람에 대한 인식 및 미국에 대한 신뢰에서 부모와 자녀의 인식에 거의 무상관에 가까운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자녀들이 부모 외의 다른 변인의 영향을 받아 나름대로 미국에 대한 인식을 형성해 나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의 영향에 대한 인식

한국 사회에 대한 미국의 영향

미국의 영향에 대한 인식은 한국 사회에 대한 미국의 영향 인식, 한국의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미국의 영향 인식, 세계에 대한 미국의 영향 인식을 포함한다. 먼저 미국 사회에 대한 인식을 세대집단별 정치만족도별 미국에 대한 지식정도별로 분석한 결과가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세대별로 종속관계, 발전에 도움, 전통문화 상실 변인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정치만족도별로는 종속관계와 전통문화 상실에서 차이를 보였다. 미국에 대한 지식 정도별로는 '발전에 도움' '전통문화 상실' '사대주의'에서 차이가 있었다. 표 12에서 전체집단의 평균을 보면 종속관계 사대주의, 전통문화 상실에서 평균값이 모두 높

표 11. 세대별 정치만족도별 미국 지식정도별 한국 사회에 대한 미국의 영향 차이

	독립변인	df	MS	F
종속관계	세대별	2	7.61	13.76 ***
	정치만족도별	1	11.78	21.30 ***
	미국 지식정도별	1	1.64	2.96
사대주의	세대별	2	1.27	2.18
	정치만족도별	1	2.00	3.44
	미국 지식정도별	1	2.34	4.03 *
발전에 도움	세대별	2	4.68	8.23 ***
	정치만족도별	1	1.96	3.45
	미국 지식정도별	1	4.01	7.06 **
전통문화 상실	세대별	2	5.33	8.43 ***
	정치만족도별	1	2.48	3.91 *
	미국 지식정도별	1	4.38	6.91 **

*는 $p < .05$, **는 $p < .01$, ***는 $p < .001$

표 12. 세대별 정치만족도별 미국 지식정도별 한국 사회에 대한 미국의 영향 평균과 표준편차

	세대별 집단						정치만족도 수준별 집단		미국에 대한 지식정도별 집단		전체					
	중학생		대학생		성인	불만		보통		모른다		안다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종속관계	3.47	(1.01) ^a	3.88	(.58) ^b	3.47	(.77) ^a	3.79	(.72)	3.33	(.84)	3.54	(.83)	3.68	(.76)	3.62	(.80)
사대주의	3.20	(1.02) ^a	3.29	(.62) ^a	3.16	(.74) ^a	3.28	(.77)	3.13	(.77)	3.17	(.80)	3.25	(.75)	3.22	(.78)
발전에 도움	2.63	(.99) ^a	3.07	(.68) ^b	3.06	(.72) ^b	2.96	(.80)	2.98	(.77)	2.86	(.81)	3.08	(.75)	2.97	(.80)
전통문화 상실	3.29	(1.05) ^a	3.59	(.62) ^b	3.23	(.78) ^a	3.44	(.80)	3.25	(.81)	3.27	(.87)	3.45	(.76)	3.36	(.82)

a, b, c는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에 기초하여, 동질집단을 표시한 것임.

게 나타나고 있고, 발전에 도움에서는 낮은 평균을 보였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가 미국으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 있고, 미국의 영향으로 인해 전통문화가 상실되었으며, 사대주의가 팽배하게 되었다는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정도도 강하였지만, 미국이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의 정도는 낮았다.

세대집단별로는 종속관계나 전통문화 상실에 대해 대학생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고, 발전에 도움에 대해서는 중학생의 평균이 가장 낮았다. 그러므로 미국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이 종속적인 관계에 있고 전통문화를 상실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 대학생들이 가장 강한 동조를 하였으며, 미국이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중학생들이 가장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치만족도 수준별로는 불만집단이 보통집단보다 종속관계에 대한 평균이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전통문화 상실에 대해서도 평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므로 한국의 정치에 대해 불만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미국의 영향으로 한국이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에 대한 지식정도별로는 미국에 대해 안다는 집단이 더욱 전통문화의 상실, 사대주의, 발전에 도움 변인에 대한 평균이 높았다. 그러므로 미국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일수록 미국은 한국 사회의 발전에 대해 도움을 주었지만, 한편으로 전통문화의 상실과 사대주의를 만연하게 했다는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에 대한 미국의 영향에 대해 한국 사람들은 매우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미국에 한국이 종속되어 있고 전통문화가 상실되었으며 사대주의 정신에 물들어 있고, 한국의 발전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인식하였다. 어린 중학생일수록 미국이 한국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정치만족도가 낮은 집단일수록 한국이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하였다. 한편 미국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상실하고 사대주의에 젖게 되었다는 부정적인 비판과 동시에,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미국의 영향

세대별 정치만족도별 미국 지식정도별 한국의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미국의 영향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표 13에 제시되어 있다. 세대별로 통일에 방해, 지나친 간섭, 북한에 대한 영향력 부족, 미국의 도움 필요에서 모두 매우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으며, 미국의 영향력 확대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정치만족도별로는 통일에 방해, 지나친 간섭, 북한에 대한 영향력 부족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미국의 영향력 확대와 미국의 도움 필요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평균과 표준편차를 정리한 표 14에서 전체 평균을 보면, 통일에 방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 부족, 지나친 간섭에서 평균이 높았다. 미국의 영향력 확대나 미국의 도움 필요에 대한 평균도 비교적 높았으나, 이상의 세 변인들보다는 약간 낮았다.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 한국의 남북관계와 통일에 방해가 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할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부족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하였다.

표 13. 세대별 정치만족도별 미국 지식정도별 한국의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미국의 영향 차이

독립변인		df	MS	F
통일에 방해	세대별	2	15.34	22.52 ***
	정치만족도별	1	12.29	18.05 ***
	미국 지식정도별	1	.39	.58
지나친 간섭	세대별	2	6.83	9.29 ***
	정치만족도별	1	13.71	18.65 ***
	미국 지식정도별	1	3.26	4.44 *
북한에 대한 영향력 부족	세대별	2	4.55	7.80 ***
	정치만족도별	1	6.86	11.75 ***
	미국 지식정도별	1	.67	1.15
미국의 영향력 확대	세대별	2	1.82	3.53 *
	정치만족도별	1	5.10	9.88 **
	미국 지식정도별	1	3.71	7.19 **
미국의 도움필요	세대별	2	5.09	7.34 ***
	정치만족도별	1	4.73	6.83 **
	미국 지식정도별	1	4.43	6.39 *

*는 $p < .05$, **는 $p < .01$, ***는 $p < .001$

표 14. 세대별 정치만족도별 미국 지식정도별 한국의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미국 영향: 평균과 표준편차

	세대별 집단						정치만족도 수준별 집단				미국에 대한 지식정도별 집단				전체	
	중학생		대학생		성인		불만		보통		모른다		안다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통일에 방해	3.82	(1.04) ^b	3.90	(.75) ^b	3.40	(.82) ^a	3.81	(.83)	3.42	(.90)	3.64	(.91)	3.69	(.85)	3.68	(.88)
지나친 간섭	3.58	(1.13) ^a	3.77	(.70) ^b	3.41	(.89) ^a	3.74	(.85)	3.27	(.88)	3.47	(.94)	3.65	(.87)	3.57	(.91)
북한에 대한 영향력 부족	3.54	(.98) ^a	3.78	(.66) ^b	3.50	(.77) ^a	3.74	(.74)	3.42	(.84)	3.55	(.84)	3.67	(.74)	3.63	(.80)
미국의 영향력 확대	3.22	(.96) ^a	3.63	(.59) ^c	3.44	(.68) ^b	3.57	(.72)	3.26	(.72)	3.33	(.79)	3.57	(.68)	3.46	(.74)
미국의 도움필요	3.10	(1.08) ^a	3.61	(.68) ^c	3.36	(.86) ^b	3.53	(.83)	3.14	(.88)	3.25	(.94)	3.53	(.80)	3.39	(.88)

a, b, c는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에 기초하여, 동질집단을 표시한 것임.

세대집단별로 보면, 중학생이나 대학생에 비해 성인집단이 통일에 방해나 지나친 간섭에 대한 평균이 가장 낮았으며, 미국의 도움 필요에 대해서는 중학생의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성인집단이 중학생이나 대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국이 남북관계나 통일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을 적게 하며 또한 미국이 지나친 간섭을 한다는 생각을 적게 하고 있었다. 반면에 중학생은 남북관계의 해결과 남북통일을 위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대학생이나 성인집단보다 적게 하므로써, 미국의 도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가장 희박하였다.

세계에 대한 미국의 영향

표 15는 세계에 대한 미국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세대별로 제국주의, 초강대국, 정의수호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문화적 지배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정치만족도별로는 제국주의와 초강대국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미국에 대한 지식정도별로는 초강대국과 문화적 지배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16에서 전체 평균을 보면 초강대국이라는 제국주의 및 문화적 지배의 평균은 높았으며,

표 15. 세대별 정치만족도별 미국 지식정도별 세계에 대한 미국의 영향 차이

독립변인		df	MS	F
제국주의	세대별	2	6.86	11.81 ***
	정치만족도별	1	5.93	10.21 ***
	미국 지식정도별	1	1.02	1.76
초강대국	세대별	2	13.45	25.44 ***
	정치만족도별	1	3.75	7.10 **
	미국 지식정도별	1	3.87	7.31 **
정의수호	세대별	2	12.33	19.63 ***
	정치만족도별	1	1.42	2.26
	미국 지식정도별	1	1.44	2.29
문화적 지배	세대별	2	2.16	3.40 *
	정치만족도별	1	1.78	2.80
	미국 지식정도별	1	3.45	5.44 *

*는 $p < .05$, **는 $p < .01$, ***는 $p < .001$

정의수호의 평균은 가장 낮았다. 그러므로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제국주의적인 영향력을 세계에 미치고 있으며 문화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하였지만, 반면에

표 16. 세대별 정치만족도별 미국 지식정도별 세계에 대한 미국의 영향 평균과 표준편차

	세대별 집단						정치만족도 수준별 집단				미국에 대한 지식정도별 집단				전체	
	중학생		대학생		성인		불만		보통		모른다		안다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제국주의	3.90	(.94) ^b	3.91	(.68) ^b	3.62	(.78) ^a	3.88	(.76)	3.60	(.82)	3.74	(.84)	3.82	(.73)	3.78	(.79)
초강대국	3.47	(1.01) ^a	4.22	(.54) ^c	3.77	(.71) ^b	3.99	(.76)	3.63	(.81)	3.73	(.86)	3.99	(.71)	3.86	(.80)
정의수호	2.55	(.92) ^a	2.95	(.76) ^b	3.20	(.75) ^c	2.97	(.83)	2.98	(.85)	2.87	(.85)	3.06	(.82)	2.96	(.84)
문화적 지배	3.48	(1.04) ^a	3.54	(.70) ^a	3.39	(.75) ^a	3.52	(.76)	3.36	(.86)	3.40	(.85)	3.52	(.77)	3.46	(.81)

a, b, c는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에 기초하여 동질집단을 표시한 것임

정의를 수호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낮게 하였다.

세대집단별로는 중학생과 대학생이 성인보다 제국주의에서의 평균이 높고, 중학생이 다른 두 집단보다 초강대국이나 정의수호에 대한 평균은 높았다. 즉 중학생을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라고 인식하는 정도는 높았으나 세계적인 초강대국이라든가 정의를 수호하는 국가라는 인식은 가장 낮았다. 그러므로 중학생이 미국의 세계에 대한 영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는 높으면서, 미국의 강한 영향력에 대한 인정을 상대적으로 가장 적게 하였으며, 정의수호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매우 낮았다.

미국의 영향에 대해 부모와 자녀의 인식을 상관관계로 구한 결과가 표 17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한국 사회에 대한 미국의 영향에 대해 부모와 자녀는 종속관계, 사대주의, 전통문화 상실에서 $r=.20\sim.25$ 의 상관을 보이고 모와 자녀는 전통문화상실에서만 $r=.19$ 의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한국의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미국의 영향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통일에 방해 및 북한에 대한 영향력 부족에서 정적인 상관을, 모와 자녀도 이러한 두 변인 및 지나친 간섭에서 모두 정적인 상관계수를 보였다. 한편 세계에 대한 미국의 영향에서는 부모와 자녀는 초강대국에서, 모와 자녀는 이외에도 제국주의 및 문화적 지배 변인에서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미국에 대한 인식에서보다는 미국의 영향에 대한 인식에서 부모와 자녀는 보다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미국의 영향으로 한국 사회의 전통문화가 상실된다는, 또한 미국이 한국의 통일에 방해된다는 인식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상관의 강도는 높지 않았다.

표 17. 부모와 자녀의 미국 영향에 대한 인식 상관관계

	부	모
한국 사회에 대한 미국의 영향		
종속관계	.20*	.14
사대주의	.20*	.11
발전에 도움	.06	.09
전통문화 상실	.25**	.19*
한국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미국의 영향		
통일에 방해	.24**	.28***
지나친 간섭	.16	.20*
북한에 대한 영향력 부족	.18*	.17*
미국의 영향력 확대	-.08	.03
미국의 도움필요	.09	.09
세계에 대한 미국의 영향		
제국주의	.15	.18*
초강대국	.17*	.21**
정의수호	.09	.08
문화적 지배	.14	.17*

*는 $p < .05$, **는 $p < .01$, ***는 $p < .001$

논의 및 결론

이상에서 한국의 중학생, 대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미국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밝혀진 결과들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의 목적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는 한국 사람에게 사회적으로 표상된 반미감정의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미국에 대한 인식에서의 세대 차이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 연구에서 부수적으로 밝혀진 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청소

년 반미감정의 형성과정, 외집단에 대한 낮은 신뢰, 한국 사람들의 낮은 정치만족도, 정치만족도 수준별 미국에 대한 지식정도별 미국에 대한 인식에서의 차이에 대해 간략히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한국 사람에게 표상된 반미감정의 의미 탐색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 상업적이고 배타적 우월주의 미국 사회, 이기적인 미국 사람, 종속적인 한미관계, 남북통일에 방해, 세계에 대한 제국주의적 지배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를 보면, 최근 한국 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다. 이와 같이 부정적인 평가의 내용들이 반미감정을 의미하는 사회적 표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미국 사회에 대해 상업주의적이고 배타적 우월주의라고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정도가 높은 반면, 민주시민사회라는 긍정적인 인식의 정도는 낮았다. 미국 사람에 대해서도 이기적이라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는 높은 반면, 선진국민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은 적게 하였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신뢰는 매우 낮았는데, 미국 사람 뿐만 아니라 미국 기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사회에 대한 미국의 영향에 대해, 종속관계라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는 높았으나,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인식은 낮았다. 한국의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미국의 영향으로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세계에 대한 미국의 영향으로는, 초강대국으로 제국주의적이며 문화적으로 지배하려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고, 정의를 수호한다는 긍정적인 인식은 낮았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2002년 12월의 범국민적 반

미시위의 심리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는 최근 미국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인식을 토착심리학적 시각에서 연구(이은희, 2003; 박은실, 2003)한 결과들과도 매우 일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한국 사람들에게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동맹국으로서, 또한 우방국가로서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이제 미국을 절대적 혈맹관계로서보다는 국제적 이해관계의 대상으로 여기며, 종속적 위치에 있기를 원하지 않고 대등한 관계로 교류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원하고 있다.

한국 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사회적 표상이 부정적으로 형성된 이유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환경 요인으로서 국내 국제여건의 변화와, 인적 요인으로서 한국 사회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해 보기로 한다.

첫째, 1950년 한국전쟁 당시의 국내 여건과 50여년이 지난 21세기 현재 한국 여건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1950년 한국 전쟁은 공산주의와의 전쟁이었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미국을 포함한 연합군이 지원하였고 이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은 절대적인 혈맹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전쟁 이후 폐허의 상태에서 미국은 많은 경제 원조를 하고 군사적 지원도 함으로써,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고마운 우방 국가였다. 그러나 한국은 1996년에 OECD에 가입했으며, 1인당 국민총소득이 \$11,380에 이르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높은 교육열의 결과로 성인의 문자해독률이 97%(통계청, 2000)로 세계적으로도 높은 비율에 해당하며,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이 80.5%(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00)라는 매우 높은 교육적 성취를 이루게 되었다. 교육을 통해 사람들은 의식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고, 점차 성숙된 시민의식

은 미국을 사대주의적으로 따르기 보다는 세계 속에서 대등한 교류를 하는 자긍심있는 국가로서 한국을 지향하게 되었으며, 점차 정치효능감이 향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이 정치효능감과 정적인 관계(한국: $r=.24$, 덴마크 $r=.27$)가 있음은 Kim, Helgeson과 Ahn(2002)의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특별히 한국에서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는 단순히 운동경기 차원을 넘어 국민적 자긍심을 양양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윤영진, 김의철과 박영신(2002)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점’을 고등학생과 성인에게 기록하게 하였을 때, ‘단결 (39.0%)’, ‘월드컵 성공개최’(17.3%)의 순서로 나타나므로써, 한국 사람들에게 월드컵에서의 4강 진출을 통해 받은 긍정적인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극적으로 만나고, 남북 이산가족이 여러 차례 상봉하는 기회가 마련됨으로써, 북한 사람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공산당으로서 보다는 언젠가 통일이 되어야 할, 같은 한민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점차 싹트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이에 따른 다양한 사회 변화들은, 한국 사람들에게 남북관계를 냉전의 대립이 아닌 화해와 협력의 시각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한국 사람들의 성숙한 의식은 한국 내 미군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의 처리과정에서, 미국 주도의 일방적 태도들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정부와 국회가 이라크 전쟁에 파병을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는 우방 국가를 도우고 현실에서 강대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실리를 찾는다는 과거의 맹목적인 태도보다는, 명분없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는 미국에 대한 보다 객

관적이고 냉정한 입장을 시민 중심으로 의사표현해 나가는 한국 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둘째로는 한국 사회 내에서 여론을 구성하는 사회 주도층 세대의 변화를 들 수 있다. 1950년대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이미 노년층으로서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은퇴를 한 상태이며 여론을 주도하는 층이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를 주도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한국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지금의 노년세대와 같이 투철한 반공의식이나 미국과의 혈맹관계를 고맙게 생각할 직접적인 경험을 할 기회가 없었다. 더군다나 지금의 젊은 청소년들은 한국이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시기에 태어나, 물질적인 풍요를 충분히 누리며 성장한 세대이다. 그들에게 미국은 세계 여러 나라 중의 한 나라에 불과하며, 한국이 대등한 입장에서 관계를 수립할 것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그림 1과 관련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세대집단간에 미국과 관련된 경험이 판이하게 다르며, 이에 따라 반미감정의 의미나 강도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셋째로는 최근 10여 년간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917년 러시아의 10월 혁명을 기점으로 세계 최초로 건설된 사회주의 국가 소련은 1991년 12월 공산주의 포기로 붕괴되었다. 냉전시대 세계 질서의 양극을 이루어 온 소련의 붕괴로,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배경으로 한 미국 중심의 21세기 팩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미국은 9.11 테러를 통해 미국 본토가 침공되는 충격을 받으며, 부시 행정부는 테러로부터 국가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고, 세계 각국에 대해 미국이 주도하는 일방적 외교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급기야는 UN 안보리의 결의없

이 강행된 이라크에 대한 전쟁에 대해, 프랑스 소련 중국 등 자국의 이권이 관련된 일부 국가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의 반전시위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으며, 명분없는 전쟁으로 미국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다. 미국 정부와 미국 사람들은 인권, 자유, 민주주의 등과 같은 미국적 가치의 추구를 위해 세계를 이롭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전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나, 세계의 여론은 그것인 석유나 패권과 같은 자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곱지 않은 시선을 갖는 것에 대해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특별히 이슬람교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들에서는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에 대응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자살테러까지 시행하는 극단적 이념대치가 일어나고 있다. 작금의 세계는 냉전 종식 이후 달라진 세계 정치의 성격을 ‘문명 충돌론’으로 설명한 Huntington(1998)의 통찰을 확인해 주는 듯하다. 즉 Fukuyama가 ‘역사의 종말’에서 낙관한대로 자유 민주주의의 확고한 승리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립적 세력 관계의 형성과 유혈 충돌을 수반하는 갈등구조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한 충돌과 대립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데올로기나 경제가 아니라 문명인데, 그중 가장 중요한 바탕은 종교라는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팍스 시니카(Pax Sinica)는 미래 미국의 패권에 새로운 도전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슬람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문화권의 유교 국가들이 서구문명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서가 아니라 상호 인정하며 공존하는 방향의 모색이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내 외의 급격한 정세변화와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변화는, 한국과 미국이 동맹국으로서 형성해 온 상호 돈독한 국가적 유대관계에 앞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선택적 반미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최근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밝혀졌지만, 그렇다고해서 모든 한국 사람들이 반미감정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미국의 한국 사회에 대한 영향에서는 ‘종속 관계’ ‘사대주의’ ‘전통문화 상실’과 같은 부정적인 표상에 대해 찬성하고,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표상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미국 사람 및 미국 기관에 대한 신뢰와 관련해서는 모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가치를 인정하고 부러워하며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실은 요인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 예컨대 미국 사회에 대해 ‘강대 국가’라든가 ‘능력중심 사회’라는 인식의 정도가 높았으며, 미국 사람에 대해서는 ‘강한 자부심’ ‘자유로움’ ‘실용적’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정도도 높았다. 또한 한국의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미국의 영향과 관련하여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든가 ‘미국의 도움 필요’라는 반응도 높았다. 또한 세계에 대한 미국의 영향에 관해서는 ‘초강대국’이라는 평가를 가장 높게 함으로써, 그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만 내포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긍정적인 의미도 동시에 포함하는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미국에 대한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의 공존은, 중학생과 부모 집단의 미국에 대한 인식을 토착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살펴본 박은실(2003)의 연구나, 고등학생과 부모 집단이 지각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을 토착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분석한 이은희(2003)의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밝혀진 바 있다. 이와 같이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 양가감정을 갖고 있다면, 미국의 어떤 측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며,

어떤 측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보다 많이 갖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회나 미국 사람 그 자체에 대해서 보다는 미국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면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미국 사회에 대한 선망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과거 일부 부유층 자녀들의 전유물로 인식되었던 '원정 출산'이 최근에 중산층 주부들 사이에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미국 LA카운티에서 태어나는 한인 신생아 수가 2,000명 정도인데, 원정 산모가 월 평균 20여명으로, 전체 한인 신생아의 10% 이상이 원정 산모들에게서 태어나는 셈이다(주간한국, 2002). 1만 달러(1,300만원)를 훨씬 넘는 비용을 들여가며 원정 출산을 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이유는, 아기가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조기유학부터 병역문제에 이르기까지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지도층 인사나 특권층들의 이중국적 문제는,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별거 이민'이라든가 '기러기 아빠'가 유행어가 되고 있다. 즉 이민을 신청해 영주권을 받은 후 아내와 자녀만 외국으로 보내고 남편은 한국에서 생업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들은 사교육비를 들이지 않고 자녀들에게 국제화된 교육을 시키기 위해 이민을 결정하였지만, 당장 외국에 나가 원하는 직장을 구하기 어렵고 국내와 같은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조선일보, 2000)이라는 것이다. 또한 '조기유학'이라 '불법유학'도 한국 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 10,324개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출국학생 수를 조사한 결과, 1996년도 12,473명, 1997년도 12,015명이었으며, IMF를

맞은 1998년엔 10,735명, 1999년도 11,237명으로 주춤하였으나, 2000년도에는 20,145명이 해외이민 및 유학 등의 이유로 출국했다(조선일보, 2001). 그리고 예 체능계 학생이나 2000년 유학규정 개정으로 처음 합법화된 중졸 이상 고등학생 등 정식으로 유학이 인정된 경우가 아닌, 불법유학생이 초등학교생 660명, 중학생 1724명, 고교생 중 자비유학 인정서를 안받은 경우가 1344명으로, 2001년만 총 3,728명에 달해 전년도에 비해 2.3배가 늘었다(조선일보, 2001).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모두 미국과 같은 선진 서양사회에 대한 선망에만 기인한다기 보다는, 한편으로 한국 사회에 대한 회의와 좌절에서 비롯된 돌파구인 것일 수도 있다.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미국 이민을 떠난 이민 1세대들이 미국을 선진사회로 선망했듯이, 비록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리고 일부 한국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에 기인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미국을 선진국으로 부러워하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한국 사회에서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 현상들과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반미감정이 미국 사회나 미국 사람 그 자체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 보다는 미국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것에 더 비중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 사람들의 반미감정이 미국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전반적인 반미가 아니라, 선택적 반미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미국에 대한 인식에서의 세대차이

한국 사회에서의 세대차이와 관련된 경험적 연

구들에서, 종속변인에 따라 현저한 세대차이가 나타나기도 하고 없기도 하였다. 예컨대 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진우와 유호식(2000)의 연구에서, 진보지향 가치는 청소년이 가장 높고 보수지향 가치는 노인이 가장 높았다. 또한 일상행동에서도 세대차이가 있었는데, 청소년이 가장 컴퓨터나 통신기기를 많이 활용하였다. 또한 청소년은 랩음악을 즐기고 쇼프로를 많이 보는 반면, 성인과 노인은 트로트 음악이나 뉴스프로를 선호하는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목표로서 가정화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에서, 청소년 성인 노인 모두 동일하였다. 가정의 화목이 생활목표로 중요하다는 자기조절 대처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는 등의 결과는, 김명언, 김의철과 박영신(2000)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한국 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을 종속변인으로 분석하였을 때 확인한 세대차이가 나타났다.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나 미국 기관에 대해 낮은 신뢰를 보였지만, 특별히 중학생 집단이 대학생이나 성인에 비해 미국을 신뢰하는 정도가 현저하게 낮았다. 또한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을 선진국민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낮았는데, 이러한 경향도 중학생이 대학생이나 성인보다 더욱 강하였다. 반면에 미국 사람을 이기적이라고 보는 정도는 높았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중학생이 대학생이나 성인보다 높았다. 한편 중학생이 대학생이나 성인보다 미국은 한국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한국의 남북관계와 통일을 위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적게 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세계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미국을 제국주의적이라고 보았는데, 특별히 중학생과 대학생이 성인보다도 제국주의적이라고 생각하였다. 반면에

미국이 정의를 수호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중학생이 가장 그러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생 성인의 순서였다. 이 연구에서의 세대차와 관련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중학생이 대학생이나 성인에 비해 미국 사회나 미국 사람 자체에 대한 인식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이 한국이나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세대 집단별로 한국 사람의 미국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최근의 선행연구(이은희, 2003; 박은실, 2003; 이연숙, 2003; 서형진, 2003; Kim, & Park, 2003) 결과들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질문은, 왜 청소년과 성인 세대간에 미국에 대한 인식에 있어 이와 같이 큰 차이가 있는가이다. 이에 대한 답은 반세기동안 한국의 급격한 사회 변동과 관련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노인이나 장년의 성인들은 한국전쟁을 경험하면서 공산당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전쟁 이후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체험하였으며, 이러한 와중에서 미국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현실을 경험한 세대이다. 비록 성인 중기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전후세대이지만, 전쟁 이후 한국 사회가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어린시절부터 학교교육을 통해 철저한 반공사상에 의해 교육을 받았으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동맹국으로 가장 든든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 이러한 삶의 직접 간접 경험을 통해 현재 한국의 노인이나 성인세대는 미국이 한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국가로서 공산주의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함께 수호하는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반면에 청소년들은 한국 사회가 경제성장을 이룬 윤택한 상황에서 태어나, 구소련의 붕괴로 냉전체계가 무너지고 세계가 지구촌이 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성장했다. 성인과 같은 철저한 주입식 반공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햇볕정책 속에서 남북 이산가족의 감동적인 만남을 목격하여 왔다. 그들에게 공산당의 남침으로 인한 한국 전쟁은 역사책에 나오는 이야기로 들리며, 공산주의와 대치하는 한국의 안보적 특수성 속에서 미국과 동맹의식을 느끼기 보다, 민족적 유대의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신세대들이다.

결국 세대집단별 미국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데 작용한 삶의 경험에서의 차이가, 미국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유발한 것이라고 연구자는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살아온 삶의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각 세대가 갖고 있는 안보의식이나 북한에 대한 인식, 또한 통일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그러므로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 대한 인식도 다른 것이며, 동일한 현실을 인식하는 데에서도 차이가 있다. 삶의 경험이 인간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많은 학자(Bandura, 1997; Kim, 1999)들에 의해 주장되어 왔다. 세대집단 간 경험의 차이가 현실 문제를 보는 시각의 차이를 유발함을 보여주는 개념적 모형(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진우, 유호식, 2000)도 제안된 바 있다.

개인이 태도를 형성하고 가치를 정립하며 행동을 선택 강화해 나가는 데 있어, 삶의 경험은 중요한 핵심적 요인이다. 예컨대 청소년들의 일탈 행동도 가정 학교환경 및 인간관계 등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이, 도덕적 이탈 등과 같은 청소년의 심리특성을 형성하고 심리와 환경이 상호작용하면서 일탈행동을 유발 촉진시켜나가므로, 부정적인 삶의 경험이 청소년의 일탈행동 형성요인으로 얼마나 중요한가가 확인(박영신, 김의철, 2003)된 바 있다. 청소년의 심리와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가정이나 학교가, 사회라는 보다 포괄적인 환경의 틀 속에서 존재하는 청소년문화 형

성 모형(김의철, 박영신, 1999)은 사회적 경험을 제공하는 사회 환경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사회 환경이나 사회 변동이 사람들의 태도변화와 행동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되었다. 예컨대 한국사회가 IMF시대를 경험하면서 사람들의 스트레스 경험에 큰 변화(박영신, 김의철, 김묘성, 2002)가 있었다.

현실 응용의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는, 긍정적인든 부정적인 삶의 다양한 경험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능동적이고 생산적이며 창의적으로 받아들여서 통제 관리할 수 있는가이다. 이와 같이 환경과 작인(agency)으로서의 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삶의 경험의 중요성은 많은 학자들(Bandura, 1997 Kim, 2000)에 의해 강조되었다. 앞으로 과제는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질적으로 다른 경험을 한 성인과 청소년 자녀세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식의 탐색과, 세대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으로서 면면히 이어가고 있는 정신적 가치들의 계승 발전의 문제이다.

기타 논의점들

청소년 반미감정의 형성과정

이 연구의 표집대상 중에 부모와 청소년 자녀를 짝을 지어 분석한 결과, 미국에 대한 인식에서 약간의 정적 관계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상관계수가 낮았다. 미국 사람이나 미국 사회에 대한 인식 및 미국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의 인식은 거의 무상관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국 사람을 선진국민으로 인식하는데에서는 아버지와 자녀 간에 부적인 관계에 있었다. 한편 미국에 대한 인식에 비해 미국의 영향에 대한 인식에서는 부모와 청소년 자녀가 더욱 관계가 있었다. 즉 미국의 영향으로 한국 사회의 전통문화가 상실된다는가, 또한 미국이 한

국의 통일에 방해된다는 인식에서, 부모와 자녀가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상관의 강도는 높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 부모와 자녀의 미국에 대한 인식에서의 관련성은 낮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청소년 자녀들이 부모의 영향을 적게 받고 나름대로 미국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유지해 나가는 가능성이 시사된다.

부모는 미국에 대한 인식 외에 정치와 관련된 인식에서도 청소년 자녀에게 큰 영향력이 없었다. Kim, Helgesen과 Ahn(2002)은 정치효능감과 신뢰 개념을 기초로, 사람들의 정치지향성을 권력 집단 불만집단 종속집단 소외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를 기초로 한국의 중학생과 부 중학생과 모의 정치지향성을 비교한 결과(이금숙, 2002),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부모가 어떠한 정치지향성을 갖고 있느냐는 자녀의 정치지향성과 무관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반미감정, 한미관계에 대한 인식, 이와 관련된 사회인식 또는 정치의식의 형성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청소년 문화의 형성 요인(김의철, 박영신, 1999)들을 고려하여 볼 때, 학교에서 교사나 또래집단의 영향, 인터넷이나 대중매체 등을 통한 사회적 영향(Park & Kim, 1999)의 작용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학교 교무실에서 전교조 교사와 비전교조 교사들이 양분되어, 최근 한국의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교육하여,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어떤 교사의 가르침을 받는가를 염려한다(디지털조선, 2003, 4, 3)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물론 요즘 한국의 교사들이 교과 외에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청소년들에게 전달하며, 교사의 이러한 가르침이 청소년에게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는 여론 수준이 아니라 과학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후속연구에서는 교사 뿐만 아니라 사회의 영향 등 부모 외적인 변인들이 청소년의 사회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폭넓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외집단에 대한 낮은 신뢰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나 미국 기관에 대해 신뢰수준이 매우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중학생 대학생 성인 집단 모두 일관되었으며, 특히 중학생이 미국 사람 뿐만 아니라 미국 기관에 대해서도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을 신뢰하는 정도가 낮은 사실이, 최근 한국 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미 감정과 결부되어 미국 사람이나 미국의 기관 그 자체에 대해 낮은 신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국 사람들이 내집단이 아닌 외국에 대해 신뢰하는 정도가 낮은 경향과도 무관하지 않다. 김의철(2002)의 연구에서 평균 40세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동료나 외집단 구성원보다는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친밀한 내집단 구성원을 신뢰했다. 이방인에 대한 신뢰는 동료나 내집단 구성원에 비해서 특히 낮았는데, 미국 사람과 같은 외국인은 이방인의 대표적인 예이다. 한편 대학생을 대상으로 Lee, Park, & Kim(2001)이 분석한 결과에서도 가족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친구 교사 동료에 대한 신뢰가 높았으며, 낯선 이방인에 대한 신뢰는 매우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람들이 내집단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높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을 포함하여 외국인을 내집단의 '우리'라기보다는 당연히 '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이유(박정열, 허태균, 최상진, 2001)로서, '동거 역사성(함께, 같이), 사적 친

밀성, 유사성' 등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인 미국 사람과 이러한 우리의식을 갖기는 어렵다.

한국 사람들의 내집단을 편애하고 외집단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경향은, 미래사회의 개방된 현실에서 그리 적절한 태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집단주의 사회가 안심(assurance)을 유발하지만 신뢰(trust)를 파괴한다'는 山岸俊男(1998)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山岸俊男(1998)은 집단 내부에서 상호 협력하는 정도가 집단간에 협력하는 정도보다 강한, 즉 내집단 편애 정도가 강한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집단 내부에서 속거나 이용당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미래사회에는 폐쇄적 관계보다 개방적 관계가 더 효용적 가치를 갖는데, 외부에 대해 폐쇄적이고 관계 내부에서 안심하고 협력하는 방식의 집단주의적 태도는, 폐쇄적인 집단주의에서 개방적인 사회로 변하는데 필요한 일반적 신뢰를 파괴한다는 것이다. 山岸俊男(1998)은 미래 일본사회가 폐쇄적 집단주의적 안심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에서 개방된 기회중시형 사회로 전환하는데 성공하기 위해, 사람들이 특정 집단이나 관계의 틀을 초월하는 일반적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山岸俊男(1998)의 지적은 비단 일본만이 아니라 한국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Fukuyama (1995)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가족주의가 강하여 가족 이외의 타인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없는 사회를 신뢰도가 낮은 사회, 그 반대로 가족 이외의 타인에 대한 신뢰가 존재하는 사회를 신뢰도가 높은 사회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가족주의는 가족의 틀을 벗어난 타인에 대한 신뢰가 발전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강력한 가족주의 전통을 가진 사회는 자발적인 집단이나 조직

의 형성에 어려움이 있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필요로 하는 경제발전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제 한국 사람들도 山岸俊男(1998)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뢰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에서 강조되는 '관계 강화'(relation fortification) 측면보다 '관계 확장'(relation extension)의 측면에 관심을 가지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람들의 낮은 정치만족도

한국의 청소년이나 성인 모두 한국의 정치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즉 한국의 정치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는 극소수이고 불만족하는 경우가 2/3가 넘으므로써, 한국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만족의 수준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국 정치에 대한 불만은 최근의 연구들에서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다. 한덕웅과 강혜자(2000)가 전국의 대학생과 성인을 표집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정치인의 부정부패/부조리'가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환경오염' '공무원 부정부패/부조리'의 순서를 나타내므로써,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정치적인 부패와 관련하여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정치지도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은 김묘성, 김의철과 박영신(2002)의 연구에서도 밝혀졌다. 중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정치 지도자의 문제점'을 직접 기록하게 한 결과, 과반수 이상이 '부정부패'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윤영진, 김의철과 박영신(2002)이 고등학생과 부모집단을 대상으로, 정치 지도자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을 직접 기술하게 하였을 때에도 '부정부패/비리'가 제일 높은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정부패/비리' 범주에 포함된 항목들을 보면, 결국 정치인의 부정부패와 부패정치를 의

미하였다. 또한 ‘한국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는데 장애가 되는 점’으로, ‘부도덕한 정치 지도자’ 범주가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부정부패/ 비리 만연’이 두 번째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의 내용을 보면 모두 정치에 대한 불신이 핵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점’에 대해서도, ‘정치 개혁’이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다. 외국과의 비교 결과를 보면 정치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 한국이 덴마크보다 훨씬 낮은 평균을 나타내었다(Kim, Helgeson, & Ahn, 2002).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의 청소년이나 성인 세대 모두 현재의 한국 정치에 대해 얼마나 불신의 골이 깊은지를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치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한국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은 아니며, 비교적 오랫동안 정치와 관련된 것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있어 온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에 이루어진 연구(서울대학교, 1988)에서도 정치현실에 만족하는 비율은 극단적으로 낮았으며,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과반수를 훨씬 넘었다. 1990년대의 분석 결과(서울대학교, 1993)에서도 정치에 만족하기 보다는 불만족하는 경향이 현저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한편 한국 사람들이 환경오염 다음으로 정치인의 부정부패와 부조리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로 지적하였다는 사실(한덕웅, 1994)은, 한국 사람들이 정치현실에 만족하지 못함을 시사한다.

정치만족도 수준별, 미국에 대한 지식정도별 미국에 대한 인식에서의 차이

세대집단 외에 미국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나

타내는 응답자 배경변인으로, 정치만족도 수준과 미국에 대한 지식정도를 들 수 있다. 한국 정치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미국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한국 정치에 대해 불만이 높을수록 미국 사회가 더욱 배타적 우월주의에 빠져있다고 보고, 미국 사람들은 더욱 이기적이라고 평가했으며, 한국 사회에 대한 미국의 영향을 종속관계로 보았고, 미국이 남북한 통일에 방해가 되고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보았으며, 세계에 대한 미국의 영향에 대해서도 제국주의라는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강하게 가졌다.

한편 응답자들이 미국에 대해 얼마나 지식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도 미국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었다. 미국에 대해 안다는 집단이 모른다는 집단보다 미국에 대한 인식과 미국의 영향에 대한 인식에서 훨씬 긍정적인 반응을 하였다. 즉 미국에 대해 안다는 집단일수록 미국 사회를 더욱 강대 국가로, 능력중심 사회로 인식하였으며, 미국 사람을 더욱 자유롭고 실용적인 사람으로 인식한 반면에, 미국에 대해 모른다는 집단일수록 미국 사람을 더욱 신뢰하지 않았으며 선진 국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미국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의 정도는 일종의 간접경험처럼 미국에 대한 인식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

이 연구에서 최근 한국 사회에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반미감정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세대 집단별 미국에 대한 인식을 분석했다. 후속연구에서 방법론적인 면에서 다음 두 가지를 보완한다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먼저, 표집대상의 연령 기준의 확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대상 중에서 성인집단은 중학생들의 학부모로서 연령 평균이 41세인 전후

세대이다. 이와 같이 이 연구에서 청소년 청년 중년기 성인만을 표집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인식을 대표성있게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세대집단별 한국 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전쟁을 경험한 60대 이상의 노년세대, 노년세대 중에서도 일제 식민지시대를 경험한 70대 이상의 연로한 노년세대의 입장과 생각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질적으로 매우 다른 삶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에 대한 인식이나 반미감정을 다루는 후속연구에서는 공산주의와 한국전쟁을 직접 경험한 노년세대들의 의식에 대해서도 분석하는 표집설계를 한다면 보다 이상적일 것이다.

다음으로, 측정도구 양호도 면에서의 보완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급증한 반미감정을 분석하기 위해 탐색적 연구를 시도하였는데, 앞으로 미국에 대한 인식이나 반미감정에 대한 후속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탐색적으로 찾아진 측정변인들을 기초로 보다 내용타당도가 높은 변인들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 토착심리학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 결과들(박은실, 2003; 이은희, 2003)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들을 토대로, 후속연구들에서 고려해 보고자 하는 몇 가지 점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먼저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한국 사람, 한국 사회,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는 것의 중요성이다. 한국의 사회심리학자가 “한국의 사회 현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차재호, 1991) 상태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심리학자들이 개인을 넘어서는 집합 단위의 연구 과제는 사회학자들의 전유물로 간주해, 집단 과정을 다루는 사회심리학자들도 한국 사회에서 충

격적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다루는데 무관하고 무력”(한덕웅, 1990)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외국 사회와 사람 및 문화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보다 중핵적인 연구과제는 한국 사회와 사람 및 문화에 대해 스스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회와 한국 사람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외국 여러 나라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인식과 비교 분석한다면 여러 가지 흥미로운 결과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동아시아의 유교문화권에 속해 있는 일본(Kim, Cho, & Harajiri, 1997)이나 중국 등과도 비교 검토할 수 있다면, 한국 사람들의 국가적이고 국민적인 정체 의식 및 토착적인 심리에 대한 이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두번째로는 한국 사회의 문제를 사회심리학적 시각에서 접근함에 있어, 세대차 연구가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 사람의 심리와 행동을 한국 사회의 문제와 변동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서 세대차 연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사회변동과 경험의 차이에 따른 인간의 집단적인 심리와 행동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세대차에 대한 연구들(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진우, 유호식, 2000)에서 강조되고 있는 바처럼, 각 세대별 집단은 각기 사회적 경험이 다르고, 이와 같이 다른 사회적 경험은 다른 심리적 구성을 인간의 마음에 내면화하며, 결과적으로 다른 행동을 선택 유지하게 되고 그 결과 삶의 양식이나 문화가 다르게 형성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세대집단별로 미국에 대한 인식, 반미감정

의 정도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는데, 이러한 세대차이와 관련된 연구가 한국 사회 속에서의 한국 사람에 대한 이해의 심리학적 접근을 위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집단효능감의 맥락에서 정치효능감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개인효능감과 관련하여서는 Bandura(1997)의 이론에 기초하여 한국 내에서도 많은 경험과학적 연구들(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이 있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박영신, 김의철, 2003)하여 볼 때 자기효능감은 행동을 설명하는 변량이 매우 큰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아직 집단효능감과 관련된 연구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2002년 6월 월드컵 축구에서 붉은 악마의 역할이라든가, 2002년 12월 시청 앞 SOFA 개정을 촉구하는 촛불시위 등 최근 한국 사회에서 집단효능감의 변화를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치효능감에 대한 부분적인 시도들(Kim, Helgesen, & Ahn, 2002)은 있어 왔으나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단효능감의 개념화 작업과 측정 및 구인타당화 작업(Construct validity)의 맥락 속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들을 수행함에 있어, 모순적이고 복잡한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개인차원만이 아니라 집단차원에서도 이해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본다. 개체로서의 인간이나 집단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의식이나 감정이 단순한 선형방정식과 같이 단순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복잡 다양하며 때로는 매우 모순적이고 혼란한 내용들이 공존한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규칙에 따라서만 인간의 행동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예컨대 이 연구의 분석 결과만 보아도, 최근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인식을 대표하는 말로 쉽게 흔히 사용하고 있는

‘반미감정’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이질적인 다양한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표상된 반미감정의 의미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대해 선택적 반미를 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동맹국으로서 가까우면서도 심정적으로는 먼 나라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표상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획일화된 법칙의 발견 자체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보다,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질문들에 다가서는 것이 요구된다. 심리학에서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단순화하여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법칙의 발견도 필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인간의 마음 속에 공존하는 모순적이고 복잡한 생각들을 연결해 주는 고리들 예컨대 ‘마음’이라든가 ‘문화’와 같은 구인(construct)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특별히 사회문제를 심리학적으로 연구하는 작업에서는, 개인이 몸 담고 있는 환경이나 사회 또는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작인(agency)으로서 인간의 마음과 행동은, 사회 또는 문화 등의 개념을 포괄하는 환경과의 상호작용(Bandura, 1997, Kim, 1999)을 통해 끊임없이 재창조 되어 나가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1989). 제 6장. 한국인의 반미의식, 한국인의 평화의식과 통일관. 91~103.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00). 2000 교육통계편람.
- 권준모. (1999). 한국의 왕따현상의 개념화와 왕따 연구의 방법론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2), 59~72.

- 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2000). 청소년과 성인간의 세대 차이와 유사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181~204.
- 김묘성, 김의철, 박영신. (2002). 한국 정치지도자의 문제점과 자질에 대한 청소년의 표상: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2002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27~333. 2002년 10월 19일. 영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 김의철. (2000). 토착심리학과 문화심리학의 과학적 토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특집호, 1~24.
- 김의철. (2002). Democracy, leadership and political culture in Korea: With specific focus on political efficacy and trust.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137~170.
- 김의철, 박영신. (1999). 한국 청소년의 심리, 행동 특성의 형성: 가정, 학교, 친구, 사회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3(1), 99~142.
- 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진우, 유호식 (2000). 청소년, 성인, 노인 세대의 차이와 생활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119~145.
- 김진웅. (1994). 반미주의의 성격과 기원. 한국미국사학회, 미국사 연구, 199~228.
- 김혜숙. (2000).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2), 115~134.
- 나은영. (2001). 국가투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인들과 대인간 신뢰: 61개국의 자료 2차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2), 65~90.
- 나은영, 민경환. (1998). 한국문화의 이중성과 세대차의 근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기존 조사자료 재해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75~94.
- 디지털조선. (2003, 4, 3). 사실 학교를 의식화 교육장으로 삼지말라.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304/200304030391.html>.
- 박영신, 김의철. (2003). 한국 학생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와 학업성취: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7(1), 33~50.
- 박영신, 김의철. (2003).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1), 81~114.
- 박영신, 김의철, 김묘성. (2002). IMF시대 이후 초, 중, 고 대학생과 부모의 스트레스 경험과 대처양식 및 사회적 지원: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105~135.
- 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부모의 사회적 지원,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 변화에 대한 종단자료 분석과 생활만족도 형성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6(2), 63~92.
- 박은실. (2003). 중학생과 부모 집단의 미국에 대한 인식: 토착심리학적 분석.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열, 허태균, 최상진. (2001). 사회적 범주과정의 심리적 세분화: 내집단 속의 우리와 우리편.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1(1), 25~44.
- 서울대학교. (1988). 국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서울대학교. (1993). 한국사회: 오늘과 내일. 서울대학교 인구 및 발전문제 연구소.
- 서형진. (2003). 정치적 성향별 세대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중학생

- 과 부모집단을 중심으로.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신호. (2000). 투표에서의 연고주의: 집단주의 경향성과의 관계 및 기저 동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145~180.
- 윤영진, 김의철, 박영신. (2002). 한국사회의 문제와 발전 전망에 대한 표상: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2002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34~339. 2002년 10월 19일. 영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 이금숙. (2002). 부모와 중학생 자녀의 정치문화의식에 대한 연구.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철. (2000). 교통행동의 심리학적 이해: 교통심리학.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119~144.
- 이연숙. (2003). 사회경제적지위, 학업성취, 생활만족도별 미국에 대한 인식의 차이 분석: 중학생과 부모집단을 중심으로.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희. (2003). 고등학생과 부모 집단이 지각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 토착심리학적 분석.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한. (2000). 한국인의 대인관계의 심리사회적 특성: 집단주의적 성향과 개인주의적 성향으로의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특집호, 201~219.
- 이훈구, 전우영, 정태연. (1999). 노숙자의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1), 123~136.
- 정태연. ((2001). 대학생 자녀와 그 부모가 평가한 세대간 차이점과 유사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2), 1~20.
- 조선일보. (2000, 12, 6). 별거이민: 가족 보내놓고 가장은 생업.
- 조선일보. (2001, 9, 14). 조기유학 대폭 증가, 불법 유학도 급증.
- 주간한국. (2002, 6, 14). 원정출산
- 차재호. (1991). 파노라마적 사회심리학의 전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학술발표논문집, 455~461.
- 최상진, 김의철, 홍성운, 박영숙, 유승엽. (2000). 권위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체계: 권위, 권위주의와 체면의 구조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69~84.
- 통계청. (2000). 국제통계연감.
- 한규석. (2000). 한국인의 공과 사의 영역: 공정과 인정의 갈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2), 39~64.
- 한덕웅. (1990). 소집단 행동 연구의 경향과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1), 24~58.
- 한덕웅. (1994). 한국 사회 문제에 대한 국민의 지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20~53.
- 한덕웅, 강혜자. (2000). 한국 사회에서 사회문제의 지속과 변화: 1994년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2), 15~37.
- 한성열. (1994). 한국문화와 그릇된 교육의식 및 관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95~107.
- 허문명, 이승현, 조이영. (2002, 3, 7). 운동권 반미에서 문화 반미로. <http://kicho.pe.kr/pds>.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Simon & Schuster.
- Huntington, S. P. (1998).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 Simon & Schuster.
- Kim, U. (1999). After the crisis in social psychology: Development of the transactional model of science.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 1~19.
- Kim, U. (2000). Indigenous, cultural, and cross-cultural psychology: A theoretical, conceptual, and epistemological analysis.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 265~287.
- Kim, U., Cho, W. C., & Harajiri, H. (1997). The perception of Japanese people and culture: The case of Korean nationals and sojourners. Leung, K., Kim, U., Yamaguchi, S., & Kashima, Y. (Eds.). *Progress in Asian Social Psychology*, Vol. 1. 321~343. Singapore: John Wiley & Sons, Inc.
- Kim, U., Helgesen, G., & Ahn, B. M. (2002). Democracy, trust, and political efficacy: Comparative analysis of Danish and Korean political culture.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51(2), 318~353.
- Kim, U., & Park, Y. S. (2003). Perception of American people, society and government: Psychological, social and cultural analysis of anti-American sentiments in South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attitudes toward the United States: The complexities of an enduring and endured relationship". January 31 - February 1, 2003. Georgetown University. Washington, USA.
- Lee, S. M., Park, Y. S., Kim, U. (2001). Analysis of Korean adolescents' conception of trust and its relations to psychological and social variables: With the specific focus on undergraduate students and employees. Paper presented at the 4th Conference of AASP, p.200. July 10-13, The University of Melbourne, Australia.
- Park, Y. S., & Kim, U. (1999). The educational challenge of Korea in the global era: The role of family, school, and government. Chinese University of Hong-Kong, *Education Journal*, 27(1), 91~120.
- 山岸俊男. (1998). 信●の構造 こころと社會の進化ゲーム. 東京: 東京大學 出版●. 김의철, 박영신, 이상미 역. (2001). 신뢰의 구조: 동서양의 비교. 문화심리학 총서4. 서울: 교육과학사.

1 차원고접수일 : 2003. 4. 2.
최종원고접수일 : 2003. 5. 11.

Perception of USA and American influence in Korea: Psychological, Social, and Cultural Basis of Anti-American Sentiments among Students and Adults

Uichol Kim	Young-Shin Park	Nara Oh
Dept. of Psychology	Dept. of Education	Dep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Inha University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Koreans respondents' perception of American society, American people and its influence in Korea and the world. These analyses have been conducted to provide the psychological, social and cultural basis for understanding the anti-American sentiments among Korean junior high school students, university students and adults. American influence is further divided into American influence on Korean society, on North-South Korean unification, and in the world. In addition, respondents' knowledge of the USA, their satisfaction with the current political functioning, and background information were obtained. A total of 763 respondents (171 junior high school students, 250 university students, and 342 parents of junior high school students) completed a survey questionnaire developed by the first two authors. The overall results indicate that the respondents had a negative view of the USA and its influence in Korea and the world. Majority of respondents perceive American society as being commercial, exclusionary, and ethnocentric. Some respondents perceive American society as being democratic and advanced. As for American people, they are perceive them as being selfish and at the same time independent and carefree. The trust for American society is very low. As for American influence in Korea, it is perceived it as creating dependency and less likely to be perceived as promoting progress and development. As for North-South Korean relations, respondents perceive the USA as interfering with the unification of two Koreas. Finally, respondents perceive the USA as a superpower with imperialistic and dominating tendencies and they were less like to perceive the USA as promoting democracy and justice. Significant differences across the age groups have been found with the junior high school students holding the most negative view about the USA and their parents holding the most positive view of the USA. University students had mixed views of the USA. holding both positive and negative views of the USA. Those respondents with greater dissatisfaction of the political system and with less knowledge about the USA has more negative views of the USA.

key words : Anti-American sentiment, Generation difference, Perception of USA, American influence, Trust, Political policy, Knowledge about USA